제1장

인지적 기법을 적용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표 개선방안

박선희 · 박주언

제1절 서 론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의 생활 실태와 취업 및 실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써, 이민자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기존에 통계청에서 실시하던『외국인 고용조사』를 확대한 것으로,『외국인 고용조사』에 비해 표본 수가 늘었고(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되었으며(외국인에서 외국인과 귀화자로), 조사항목이 다양화되었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 또는 체류하고자 하는 만 15세 이상 이민자(외국인과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표는 공통조사와 부가조사로 구분되는데, 공통조사표는 이민자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항목, 고용,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보건 및 정보화, 사회참여, 자녀교육, 체류사항 등 10개 부문 18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부가조사표는 체류자격(귀화자/영주권자, 유학생, 방문취업, 비전문취업)에 따라 정책에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표는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중국어 등 총 13개 언어로 제공되며, 조사방법은 조사원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필요 시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행한다(법무부·통계청, 2016).

인지면접 진행에 도움을 준 박세연, 최문정 연구보조원에게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2017년에 실시 예정인 본조사에 앞서『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조사표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조사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특히『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응답자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조사내용이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2016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험조사 실시과정에서 보고된 조사원들의 경험을 연구결과 도출에 활용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

1. 인지면접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이해도와 응답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 방법을 적용하였다. 인지면접은 응답자와의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응답자 관점에서 조사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측정오차 감소 및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 설계에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응답자의 응답과정은 질문 이해(comprehension), 정보 인출(retrieval), 판단(judgement), 응답 보고(response) 순으로 이루어지는데(Tourangeau, Rips, & Rasinski, 2000), 인지면접에서는 응답자의 이해 및 해석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응답 형성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진단한다(Hughes, 2004).

가. 참가자

인지면접 참가자는 18명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거주한 15세 이상 이민자(외국인과 귀화자) 중 대전 지역에 거주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1] 참가자 중 남성은 6명, 여성은 12명이었고, 연령구성은 20~30대가 10명, 40대 이상이 8명이었다.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이 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 중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인 경우가 5명이었다. 국적은 중국(조선족 포함)이 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체류자격은 F-4(재외동포)인 경우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귀화자는 3명이었다. 참가자 특성은 <표 1-1>과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1) 참가자 선정을 위해 대전 거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별 전화접촉을 통해 한국어 소통능력을 사전 평가하였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22명을 참가자로 선정하였으며, 불참자를 제외한 18명을 대상으로 인지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1-1〉 참가자 특성

(단위: 명)

	전체	성별		연령(만 나이)		교육정도		
		남	여	20~30대	40대 이상	고졸이하	대졸 이상 (4년제 미만)	대졸 이상 (4년제 이상)
참가자 수	18	6	12	10	8	5	4	9

주: 대졸 이상(4년제 미만)은 현재 대학교(4년제 이상)에 재학 중인 1명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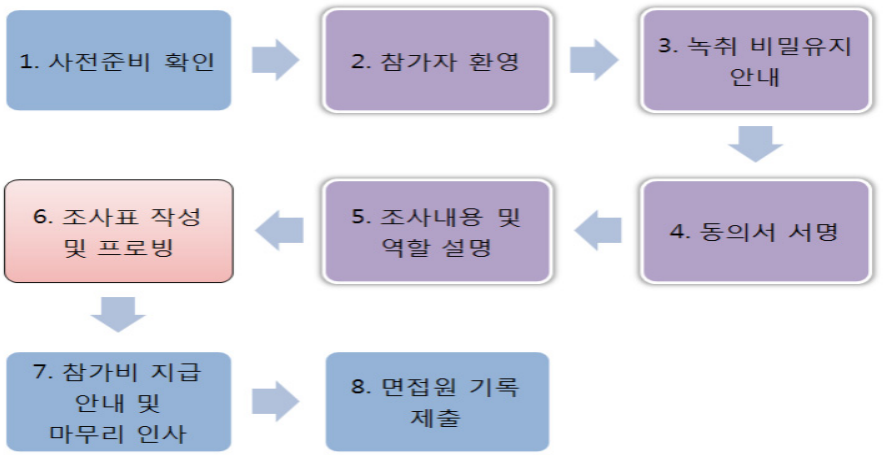
〈표 1-2〉 참가자별 세부 특성

이름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현재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bjo	여	47	전문대	중국(조선족)	H-2 (방문취업)	10년 이상
asg	남	36	대학원(박사)	중국(조선족)	F-4 (재외동포)	10년 이상
cgh	여	52	고등학교	중국(조선족)	H-2 (방문취업)	3년~4년 미만
lgj	남	55	고등학교(중퇴)	중국(조선족)[1)]	F-4 (재외동포)	10년 이상
lyc	남	56	중학교(중퇴)	중국(조선족)	F-4 (재외동포)	5년~10년 미만
kmb	남	32	대학원(박사 수료)	중국(조선족)	F-4 (재외동포)	5년~10년 미만
lhy	여	27	대학교	중국	F-1 (방문동거)	5년~10년 미만
hss	여	24	대학교(재학)	중국	D-2 (유학생)	4년~5년 미만
hsw	여	23	대학교	중국	D-10 (구직)	3년~4년 미만
ysh	남	62	고등학교(중퇴)	대만(화교)[1)]	F-5 (영주)	10년 이상
yhm	남	62	고등학교	미국[1)]	F-4 (재외동포)	10년 이상
pyh	여	65	전문대	캐나다[1)]	F-4 (재외동포)	10년 이상
yla	여	29	대학원(석사 재학)	러시아	D-2 (유학생)	2년~3년 미만
njr	여	39	대학교	키르키즈스탄	F-5 (영주)	10년 이상
gyh	여	26	대학원(석사 재학)	인도네시아	D-2 (유학생)	3년~4년 미만
pjy	여	38	대학교	한국(태국)[2)]	한국 국적 취득	10년 이상
ssn	여	33	전문대	한국(캄보디아)[2)]	한국 국적 취득	10년 이상
kol	여	46	대학원(박사)	한국(일본)[2)]	한국 국적 취득	10년 이상

주: 참가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가명(영문 이니셜 표기)을 사용함
1) 출생 국가(태어난 시점에 어머니가 살던 국가)가 한국인 경우임
2) 현재 국적이 귀화하여 한국인인 경우, 귀화 전 국적명을 병기함

나. 절차

인지면접은 2016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통계개발원 내 조사표실험실 Lab1과 Lab3에서 이루어졌다. 참가자가 조사표실험실에 도착하면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참가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가동의서에는 모든 진행과정이 녹화되고,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사표 작성은 참가자의 한국어 읽기능력에 따라 자기기입식 또는 면접원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표 작성 후,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면접원은 프로빙 지침에 따라 각 항목의 응답과정을 상세히 묻고 참가자의 응답내용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참가자에게 사례비 지급관련 서명을 받고, 면접원은 면접과정에서 기록한 프로빙 내용과 관찰된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였다([그림 1-1]).



[그림 1-1] 인지면접 진행과정

인지면접에 사용된 프로빙 지침은 65개의 세부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은 용어나 표현의 이해(U, 24개, 37%), 응답의 계산과정(P, 8개, 12%), 응답의 정확성(A, 16개, 25%), 항목 간 구분 가능성 및 어려움(C, 9개, 14%), 응답선택 어려움(S, 7개, 11%), 기타 응답 어렵거나 부담스러웠던 항목(1개, 2%) 등이었다. 세부 프로빙 지침은 <표 1-3>과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 인지면접 프로빙 유형별 질문 수

(단위: 개)

유형	U	P	A	C	S	기타	합계
질문 수	24	8	16	9	7	1	65

주: U(Understanding, 용어/표현이해), P(Process, 계산과정), A(Accuracy, 정확성), C(Classification, 항목구분), S(Selection, 응답선택)

〈표 1-4〉 인지면접 조사항목별 세부 프로빙 유형 및 내용

영역	조사항목	유형	내용
공통	-	기타	응답 어렵거나 부담스러웠던 항목 및 이유
기본항목	문1~9	U	이해되지 않는 단어
	문10	C	기타 친인척에 포함되는 사람
고용	문11~15	U	이해되지 않는 단어
	문16	A	주된 일을 한 직장 기재 여부
		A	본사 별도 존재 여부
	문18	C	사업체와 내가 한 일 차이 여부
	문17	P	직장 종사자 수 계산방법
	문20	P	현재와 같은 일 한 기간 계산과정
	문21-2	U	이해되지 않는 단어
	문22	P	외국인 또는 귀화자 수 계산과정
		C	거의 모든/대부분의/일부/거의 없음 응답기준
	문23	C	상용/임시/일용근로자 응답기준
	문25	P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 계산과정
	문26-1	U	질문내용 이해 여부
	문27	A	응답한 기술 수준의 구체적인 예
	문28	A	비교기준이 된 한국인 근로자 업무 구체화
	문29	U	이해되지 않는 단어
		S	응답선택 어려운 항목
	문35~37	U	이해되지 않는 단어
교육	문38	A	교육 또는 훈련 내용 구체화
	문39	A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 구체화

영역	조사항목	유형	내용
주거 및 생활환경	문40	U	이해되지 않는 단어
		A	(아파트, 기숙사 아닌 경우) 집의 종류 구체화
	문41	U	이해되지 않는 단어
		A	(자기 집이 아닌 경우) 집의 점유형태 구체화
	문42	A	거주지 이사 시기
		A	지난 1년간 거주지 이사 횟수
	문43	U/C	이해되지 않거나 구분 어려운 항목
		A	거주지 이사 이유
	문44	U/S	이해되지 않거나 응답선택 어려운 항목
소득과 소비	문45	P	월평균 총소득 계산과정
	문46	U	이해되지 않는 단어
	문47	P	송금횟수 및 금액 계산과정
	문48	U	이해되지 않는 단어
		P	응답비율 계산과정
	문49	U/S	이해되지 않거나 응답선택 어려운 항목
보건 및 정보화	문51-1	U/C	이해되지 않거나 구분 어려운 항목
	문52~52-2	P	문52 계산과정
		U/C	이해되지 않거나 구분 어려운 항목
사회참여	문55	U	평소 여가생활 구체화 (여가생활 이해 여부)
	문56	U	응답항목 선택 이유 (소속감 이해 여부)
	문57	U/S	이해되지 않거나 응답선택 어려운 항목
	문58-1	U/S	이해되지 않거나 응답선택 어려운 항목
	문59	U	사람 수 계산 시 생각한 상황 구체화
한국어 능력	문62	A	한국어 학습 장소 및 기간
	문63	U/C	이해되지 않거나 구분 어려운 항목
자녀교육	문64~64-4	U/S	이해되지 않거나 응답선택 어려운 항목
		A	문64 자녀 나이
		A	문64-2 참여내용 구체화
	문65~65-2	U/C	이해되지 않거나 구분 어려운 항목
		A	자녀 출생연도
체류사항	문67~72	U/S	이해되지 않거나 응답선택 어려운 항목
	문71	A	2015년 9월 이전 한국 거주 여부

2. 조사원 보고

조사원 보고(interviewer debriefing)는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원의 의견을 들어 조사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사용될 질문의 워딩이나 구조 등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Campanelli, Martin, Rothgeb, 1991). 조사원 보고는 조사원 그룹 보고와 평가 양식을 통한 보고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평가 양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질문을 평가하였다. 조사원 보고를 위해 시험조사 조사표에 평가 양식을 인쇄하여 조사원이 조사 후 평가 양식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평가 양식은 조사원이 질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응답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응답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용어나 개념이 있었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그림 1-2]).



※이 페이지는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The following should be completed by enumerators only.)

1. 조사표에 표현된 대로 질문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① 어려움이 없었음 → 3번으로 ②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음 ③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음

2. 질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조사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5개 기입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번	번	번	번	번

3. 응답자가 응답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워하였습니까?
① 어려워하지 않았음 → 5번으로 ② 약간 어려워하였음 ③ 매우 어려워하였음

4. 응답자가 어려워했던 조사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5개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번	번	번	번	번

5. 응답자가 질문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 중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르게 이해한 것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음 → 7번으로 ② 약간 있었음 ③ 매우 많았음

6. 이해를 못하거나 다르게 이해한 용어들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

7.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까?(공통조사표와 부가조사표 총소요시간 기입)
□□ 분

[그림 1-2] 조사원 보고 평가 양식

3. 전문가 검토

전문가 검토(expert review)는 질문이나 응답항목이 조사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면접과 조사원 보고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 결과를 참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조사표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언어표현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졌다.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는 국어학 및 교육학 전공자로 외국인 대상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은 조사표의 구성이나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4.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지면접과 조사원 보고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질문이나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항목을 구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두 방법은 각각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데, 조사원 보고는 현장조사 상황을 잘 반영하고, 많은 응답자로부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다. 반면, 인지면접은 소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고 실험실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낮지만, 심층질문을 통해 응답 오류 항목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원 보고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표 작성 시간과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을 파악하였으며,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이해한 용어를 확인하였다. 또한 인지면접을 통해 응답하기 어려운 지점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원 보고와 인지면접 결과를 통해 확인된 응답오류 또는 오류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조사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제3절 연구결과

1.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조사원 보고에 따르면, 조사현장에서 조사표 작성에 걸린 소요시간은 평균 53.9분이었다. 최장 소요시간은 125분이었고, 최단 소요시간은 20분이었다.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은 공통조사와 부가조사를 모두 포함하여 측정되었는데, 부가조사를 작성해야 했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D-2/D-4-1/D-4-7(유학생), F-5(영주)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조사표 작성시간은 평균 57분이었고, 부가조사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사표 작성시간은 평균 53분이었다. 부가조사를 작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체류자격이 E-9과 H-2인 사람들의 소요시간이 길었다. <표 1-5>에 체류자격별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표 1-5〉 체류자격별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단위: 명, 분)

체류자격	인원	평균	최솟값	최댓값
전체	2,240	53.9	20	125
E-9(비전문취업)	262	59.7	30	120
H-2(방문취업)	249	57.6	30	125
E-1~E-7(전문인력)	58	52.8	30	109
D-2, D-4-1, D-4-7(유학생)	105	54.7	30	99
F-4(재외동포)	358	52.0	30	120
F-5(영주)	155	54.7	30	110
F-5-2(국민의 배우자)	9	50.0	35	80
F-6, F-2-1(결혼이민)	174	52.7	20	120
F-2(거주)(F-2-1은 제외)	29	53.6	30	100
F-1(방문동거), F-3(동반)	98	56.4	30	110
한국 국적 취득	726	51.2	30	120
기타	17	53.5	30	85

주: 회색 부분은 부가조사(각각 약 15개의 질문)가 포함된 경우임

2. 조사항목 검토 및 개선방안

가. 질문 및 응답 어려움 평가 결과

조사원 보고 결과, 질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240건 중 570건(약간 어려움 485건, 매우 어려움 85건)으로 25%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가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된 경우는 696건(약간 어려움 606건, 매우 어려움 90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질문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 중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이해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94건(약간 있었음 704건, 매우 많았음 90건)으로 35%를 차지했다. 질문 및 응답 어려움에 대한 조사원 보고 결과가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1-6〉 질문 및 응답 어려움

(단위: 건)

		질문 어려움	응답 어려움	이해 어려운 용어
없음		1,670(74.6%)	1,544(68.9%)	1,446(64.6%)
있음	약간 있음	485(21.7%)	606(27.1%)	704(31.4%)
	매우 많음	85(3.8%)	90(4.0%)	90(4.0%)

공통조사표에서 조사원들이 질문 또는 응답이 어렵다고 꼽은 조사항목 중 상위 30개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표 1-7>에 제시된 조사항목은 최소 16회 이상 선택된 것이며, 특히 56번, 48번, 57번 조사항목은 100회 이상 보고되었다.

질문이 어려운 항목과 응답이 어려운 항목은 대체로 일치했으며, <표 1-7>의 상위 30위 이내에 속한 문항 중 음영으로 표시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다. 이처럼 높은 일치율을 보인 이유는 질문 어려움과 응답 어려움 항목이 모두 조사원의 판단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응답자가 응답을 어려워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설명을 추가하거나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재질문하면서 질문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일 수 있다.

〈표 1-7〉 질문 및 응답 어려움 문항(상위 30개)

순위	질문 어려움			응답 어려움		
	항목 번호	내용 / 형태 및 특징	응답 빈도	항목 번호	내용 / 형태 및 특징	응답 빈도
1	56	소속감 / 매트릭스	150	48	지출비율 / %계산 개방형	221
2	48	지출비율 / %계산 개방형	132	56	소속감 / 매트릭스	218
3	57	사회단체활동 / 매트릭스	105	57	사회단체활동 / 매트릭스	160
4	10	가구원 / 매트릭스	89	38	취업교육경험 / 항목 10개	87
5	38	취업교육경험 / 항목 10개	88	44	주거환경만족 / 매트릭스	83
6	44	주거환경만족 / 매트릭스	80	46	사회보험가입 여부 / 매트릭스	77
7	29	직장만족 / 매트릭스	67	39	한국에서 받은 교육 / 항목 10개	76
8	39	한국에서 받은 교육 / 항목 10개	63	10	가구원 / 매트릭스	74
9	16	일한 곳 / 개방형	59	59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 매트릭스	62
10	45	월평균 총 소득 / 개방형	58	29	직장만족 / 매트릭스	61
11	47	송금횟수 및 금액 / 개방형	56	45	월평균 총 소득 / 개방형	57
12	46	사회보험가입 여부 / 매트릭스	49	18	직장에서 한 일 및 직위 / 개방형	53
13	43	거주지역 이사 이유 / 항목 11개	43	41	점유형태 및 임차료 / 개방형	46
14	18	직장에서 한 일 및 직위 / 개방형	42	58	차별대우 경험 / 매트릭스	46
15	23	직장에서의 지위 / 항목 6개	41	16	일한 곳 / 개방형	45
16	28	근로여건 비교 / 매트릭스	41	54	한국에서 어려운 점 / 항목10개(3순위)	44
17	59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 매트릭스	38	27	기술 수준 표현 / 항목 4개	40

순위	질문 어려움			응답 어려움		
	항목 번호	내용 / 형태 및 특징	응답 빈도	항목 번호	내용 / 형태 및 특징	응답 빈도
18	55	여가생활 만족 / 5점 리커트	36	69	체류자격 변경(이전 및 처음 자격) / 11개 항목	39
19	58	차별대우 경험 / 매트릭스	36	63	한국어 실력 / 항목 7개	38
20	27	기술 수준 표현 / 항목 4개	34	47	송금횟수 및 금액 / 개방형	36
21	54	한국에서 어려운 점 / 항목10개(3순위)	28	43	거주지역 이사 이유 / 항목 11개	35
22	41	점유형태 및 임차료 / 개방형	27	23	직장에서의 지위 / 항목 6개	33
23	20	현재와 같은 일을 한 총 기간 / 합산	26	55	여가생활 만족 / 5점 리커트	33
24	37	주로 한 일 / 8개 항목	24	25	월평균 임금 / 개방형	31
25	40	집의 종류 / 5개 항목	23	28	근로여건 비교 / 매트릭스	25
26	63	한국어 실력 / 항목 7개	23	20	현재와 같은 일한 총 기간 / 합산	22
27	69	체류자격 변경(이전 및 처음 자격) / 11개 항목	22	62	한국어 학습 경험 / 개방형	21
28	24	근로기간 및 고용계약기간	21	17	직장의 종사자 수	18
29	25	월평균 임금 / 개방형	21	64	자녀교육 어려움 및 교육비 부담	16
30	62	한국어 학습 경험 / 개방형	20	67	입국년월 / 개방형	16

주: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질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항목 30개와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항목 30개 목록 중 한 군데에만 포함된 경우임

질문이나 응답이 어렵다고 보고된 상위 항목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매트릭스 형태의 조사표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율, 소득, 임금, 송금액 등 숫자를 직접 응답해야 하거나 계산이 필요한 항목도 응답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렵다고 보고된 빈도가 가장 높은 48번 문항은 월평균 총소득의 지출 비율에 대한 질문으로, 지출금액을 비율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지면접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계산하는 과정을 어려워하거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응답오류를 보였고, 응답하기 위해 한번 더 계산해야 하는 과정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였다. 56번과 57번 문항은 각각 소속감에 대한 질문과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수준에 대한 질문이다. 이들 문항은 매트릭스 형태이면서 동시에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던 항목이다.

나. 개별 항목 평가 및 개선방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원 보고에서 질문이나 응답이 어렵다고 보고된 항목들은 주로 응답과정이 어렵거나 질문내용 및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례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원 보고 결과는 응답오류 상황 및 오류 유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에 질문이나 응답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나. 개별 항목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는 인지면접을 통해 드러난 응답자들의 오류 및 어려움 호소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질문 및 응답이 어렵다고 보고된 항목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응답오류가 드러나거나 어려움을 호소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제시했으며, 개선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상 제안한 경우도 있으며, 특별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해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 개선방안은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외국인 고용조사』나 다른 조사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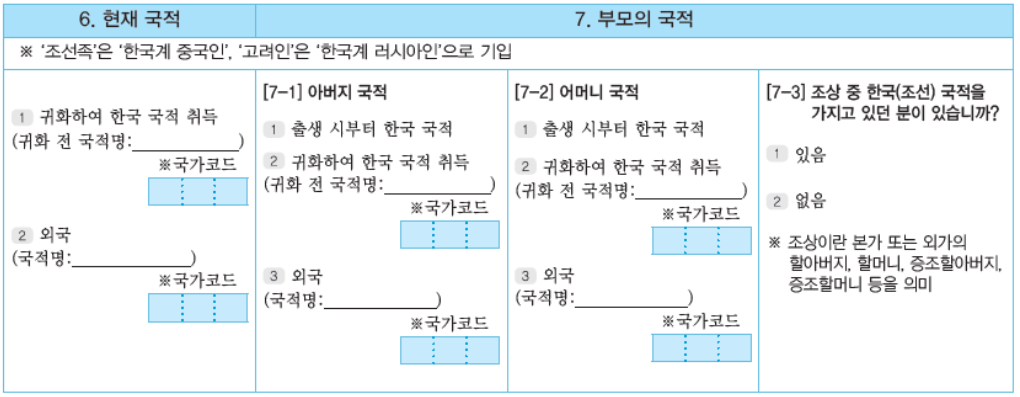
1) 기본항목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출생 국가	5. 종교
_____ _____	1 남성 2 여성	□□□□년 □□월□□일	※ 태어난 시점에 어머니가 살던 국가 1 한국 2 외국 (국가명:_____) ※국가코드	1 기독교(개신교) 2 기독교(천주교) 3 이슬람교 4 힌두교 5 유교 등 중국전통종교 6 불교 7 기타( ) 8 없음

- **(문4) 출생국가 응답오류: 어머니가 살던 국가를 어머니의 국적으로 이해**

4번 출생국가 항목에서 한국에서 출생했다고 응답했지만, 면접 결과 중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었다(lgj). 응답자는 출생국가를 한국이라고 잘못 응답한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는 '태어난 시점에 어머니가 살던 국가'를 '어머니의 국가'로 인식하고 '태어난 시점에 어머니의 국적'을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머니가 살던 국가를 명시하는 것이 또 다른 혼란이나 오류를 유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질문표현)** '출생 국가' → '태어난 국가'로 수정



- **(문6) 조선족과 고려인의 국적입력 오류, 이중국적자 응답 어려움**

6번 항목에서 중국 국적으로 응답했지만, 조선족으로 확인된 경우가 있었고(bjo, cgh, lgj, lyc, kmb), 태국인이면서 한국인(귀화자)인 이중국적자가 어떤 국적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질문한 경우가 있었다(pjy). 또한 7번 부모의 국적의 세부 항목인 [7-1]부터 [7-3]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6번 현재국적 항목은 큰 주제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자신의 국적을 묻는 질문인지 몰랐다는 응답도 있었다(ssn).

☞ **(질문순서)** 국적관련 질문을 체류사항 질문 이후에 오도록 하고,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적을 추가로 질문하면, 국적과 관련한 오류를 줄일 수 있음

☞ **(하위항목)**

- 7-3번은 조상에 대한 질문으로 부모의 국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6번과 7번을 '국적'으로 통합하고, [본인 국적], [아버지 국적], [어머니 국적], [조상 중~]으로 하위문항 구성

-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추가설명이 질문과 분리되어 있어 잘 인식되지 않음

→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추가설명 부분을 칸으로 구분하지 않고, 질문 상단에 배치

☞ **(응답정확성)** 조선족이 '한국계 중국인'으로 응답하지 않고 '중국' 국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지침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면접 과정에서 국적이 '중국' 또는 '러시아'인 경우 '조선족'이나 '고려인'이 아닌지 확인 필요

☞ **(응답범위)** 7-3번 문항에서 '등'을 삭제하고 조상의 범위를 증조대까지 제한

: 영어 질문에서는 본가, 외가쪽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어 질문에서는 '본가 또는 외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때 '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님. 하나는 그밖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의미임. 영어 질문과 비교해 본다면, 한국어 질문에서의 '등'은 후자의 의미인 한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전자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그럴 경우, 조상의 범위가 넓어짐

8. 교 육 정 도

[8-1] 최종학력
※ 국가와 무관하게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기재
※ 응답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규교육과정 또는 동등한 자격 기관의 졸업 기준으로 학력을 판정
(예시) 응답자 국가에서 5년제 중학교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로 기입

0 안 받았음(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초급대, 2년 · 3년제 대학 포함)
5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 포함)
6 대학원(석사)
7 대학원(박사)

[8-2] 수학여부

1 졸업
2 재학
3 휴학
4 중퇴
5 수료

[8-3] 최종 학위(졸업장) 취득 국가

1 한국
2 외국
(국가명:_____)
※국가코드

※ 현재 한국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경우 석사취득 국가, 고등학교 중퇴자인 경우 중학교 졸업장 취득 국가를 기입

- **(문8) 최종학력과 최종학위 취득 국가 다를 경우, 응답과정 매끄럽지 않음**

현재 조사표에서는 8-2번 '수학여부'에서 졸업이 아닌 경우, 최종학력 기재사항과 최종학위 취득 국가 응답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hss, yla). 예를 들어,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박사과정 동안 어떤 국가에서 공부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8-1번과 8-2번에서는 최종학력을 질문하고, 8-3번에서는 최종학위 취득 국가를 질문하고 있어, 학력과 학위취득에 대한 응답내용이 다를 경우 질문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혼란을 줄 수 있다.

☞ **(질문내용)** 질문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최종학력 또는 최종학위 중 질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을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며, 최종학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8-2번과 연계하여 국가명을 기재하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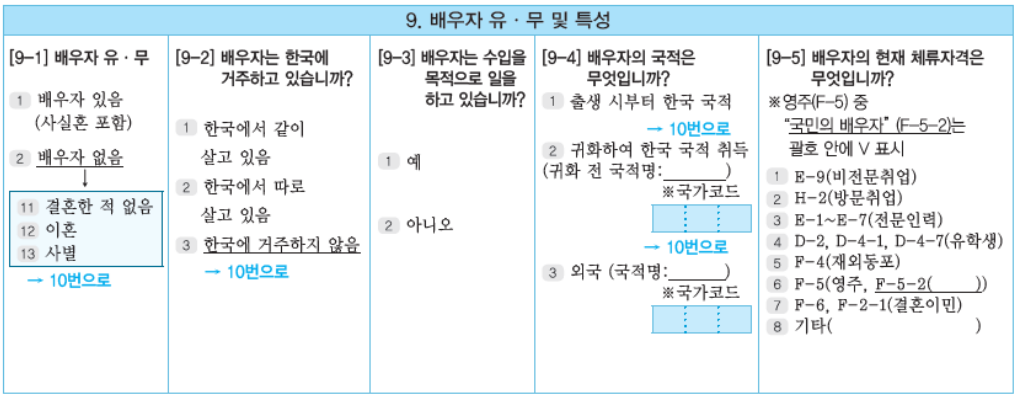
- **(문8) 교육체계 달라 응답 오류**

교육정도 항목에서 응답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외국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했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화교학교에 다닌 응답자가 최종학위 취득 국가로 대만을 응답했다(ysh). 또한 응답자 국가와 교육체계가 달라 응답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중학교 중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면접을 통해 중국의 고등과정에서 중퇴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이다(lyc). 학제가 다른 외국에서 교육받은 이민자의 경우, 본인의 학력을 한국 학력에 대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준명시)** 8-1번 응답항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로 명시하고, 각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수정

- **(문8-3) 2개국 이상에서 동일한 학위 취득한 경우 등 질문**

2개국 이상에서 동일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어떤 국가를 응답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hsw, pjy).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최종학위 취득', '교육정도'(cgh)가 언급되었다.



• **(문9) 사실혼, 배우자 용어 이해 어려움**

항목내용 중 '사실혼'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3명이었다(njr, lhy, yla). 또한 '배우자'의 의미에 대해 묻는 참가자도 있었다(cgh).

☞ **(용어추가)** 9. 배우자 → 9.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로 명시

• **(문9) 이동 지시 두드러지도록 디자인 수정 필요**

9-5번에서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에 어떤 응답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다(yhm). 9-4번에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 10번으로 이동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9-1번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10번으로 이동하지 않고 응답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다(bjo, pyh).

☞ **(디자인)** 9-2번을 10번의 가구원 현황에 통합하여 하위항목 수를 줄이고, 이동지시 화살표의 위치 등에 대한 가독성 제고

10. 가구원 현황

가구원	유 · 무	한국에 거주하지 않음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음	한국에서 따로 살고 있음
1 미혼자녀	1 있음 2 없음	( )명	( )명	( )명
2 기혼자녀 또는 그 배우자	1 있음 2 없음	( )명	( )명	( )명
3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1 있음 2 없음		( )명	( )명
4 부모 (배우자 쪽 포함)	1 있음 2 없음		( )명	( )명
5 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1 있음 2 없음		( )명	( )명
6 형제 · 자매 또는 그 배우자	1 있음 2 없음		( )명	( )명
7 기타 친인척	1 있음 2 없음		( )명	( )명
8 기타 동거인	1 있음 2 없음		( )명	
합계		( )명	( )명	( )명

• **(문10) 배우자 포함한 가족관계 이해 어렵고, 응답형식 단순화 필요**

가구원 현황 항목에서는 18명 중 9명이 응답오류를 나타냈고, 5명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응답오류에는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어려움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우자 쪽 포함'이나 '그 배우자'의 용어가 포함되어 배우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를 응답해야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2번 '기혼자녀 또는 그 배우자' 항목에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의 경우, 면접 시 본인의 배우자를 가리킨 것이었다면서

자녀는 따로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lyc). 또한 4번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부모를 보고하지 않은 응답자가 '배우자 쪽 포함'이라는 괄호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경우(ssn), 6번에서 형제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남편의 형제임이 드러나 응답오류임이 확인되었다(pjy, lhy). 또한 응답형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선부분에 응답한 참가자도 있었다.

☞ **(질문순서)** 매트릭스 형태의 응답형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 응답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먼저 제시되어 있어 응답오류를 유발함. '한국에 거주하지 않음' 항목을 가장 뒷부분에 배치

☞ **(용어검토)** 가족관계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

- '미혼 자녀' → '결혼하지 않은 자녀'
- '기혼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결혼한 자녀 및 자녀의 남편(또는 아내)'
- 손자녀 또는 배우자 → 손자·손녀 및 손자·손녀의 남편(또는 아내)
- 부모(배우자쪽 포함) → 부모(남편 또는 아내의 부모 포함)
- 조부모(배우자쪽 포함) → 할아버지·할머니(남편 또는 아내의 할아버지·할머니 포함)
-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의 남편(또는 아내)
- 기타 친인척 → 친척(남편 또는 아내의 친척 포함)

☞ **(응답기준)** 미혼뿐만 아니라 기혼 자녀와 배우자도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에 대한 응답은 배제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함

- **(문10) 친인척의 범위, 가구원 응답기준 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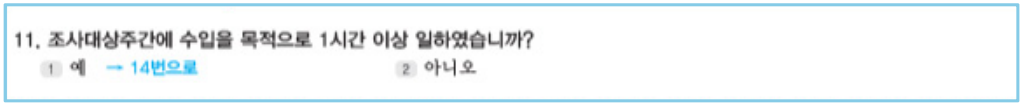
기타 친인척의 범위를 질문하거나 임의의 기준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다(yla, asg).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에서 따로 살고 있는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를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pyh).

☞ **(질문구분)**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묻는 질문과 혈연관계의 '가족'을 묻는 질문을 나누어 문항을 재구성하거나, 두 기준 중 하나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함

- **(문10) '조부모', '손자녀', '기혼자녀' 등 용어 이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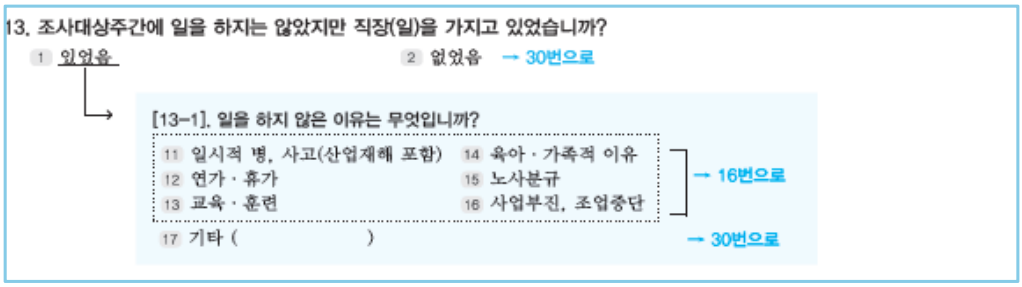
'조부모'의 의미를 묻는 사람이 3명이었고(pjy, cgh, bjo), '손자녀'(bjo), '가구원'(cgh)에 대해 질문한 경우도 있었다.

2) 고용


11.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 예 → 14번으로 2 아니오

- **(문11) 자영업자, 임시직 등 응답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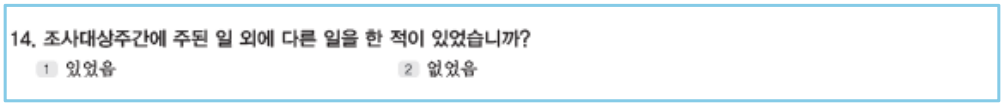
자영업자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자 고용인이 아니어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ysh). 또한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으로 일한 경우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yla), 조사대상주간에 산업재해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목수였던 과거 경험을 근거로 일했다고 응답한 사례(lgj)도 있었다.


13.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30번으로
[13-1].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일시적 병, 사고(산업재해 포함) 14 육아 · 가족적 이유
12 연가 · 휴가 15 노사분규
13 교육 · 훈련 16 사업부진, 조업중단
→ 16번으로
17 기타 ( )
→ 30번으로

- **(문13-1) '노사분규', '조업중단' 용어 이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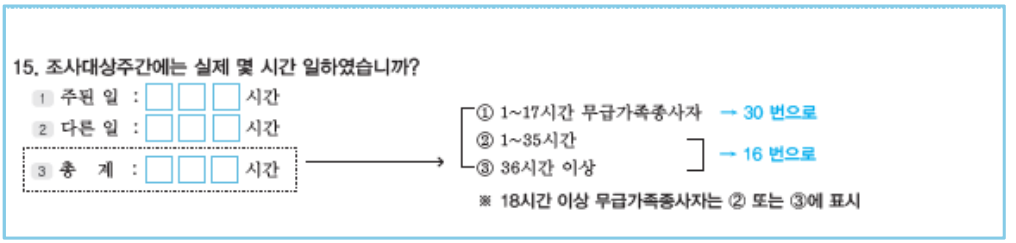
응답항목 내용 중 '노사분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5명이었고(njr, lhy, yla, asg, ssn), '조업중단'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자도 있었다(asg).

☞ **(용어검토)** 기존『외국인 고용조사』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나, 응답자 인지 과정을 고려하여 응답항목 검토 및 용어 순화 등 검토
- '사업 부진, 조업 중단' → '직장 휴업'
- '노사분규' : '사업주와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일 중단'으로 설명 가능


14. 조사대상주간에 주된 일 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문14) 다른 일이 임시적 일인 경우,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

주된 일 외에 다른 일로 임시직 일을 병행한 경우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인턴으로 주당 7시간, 학교 앞 국밥집에서 주당 12시간 아르바이트하는 참가자가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gyh),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으면서 중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응답자가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kmb). 또한 14번은 주된 일과 다른 일을 구분한 첫 번째 질문으로, 다른 일에 대한 질문이 선행질문과 잘 연결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다른 일이요?"라고 질문(yhm)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문15) 하루 근무시간 응답하여 응답오류 보임**

주당 근무시간을 기입하지 않고, 하루 근무시간을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12시간 일한다고 응답했으나, 하루 일한 시간인지 일주일 일한 시간인지 다시 질문하자 하루에 12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ysh). 또한 10시간이라고 응답한 참가자의 경우, 현재는 일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에 하루 10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lgj). 하루 또는 일주일 중 어떤 기준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cgh).

☞ **(질문표현)** '조사대상주간인 일주일 동안 실제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로 일주일의 기간 제시 검토

• **(문15) 주된 일과 다른 일의 구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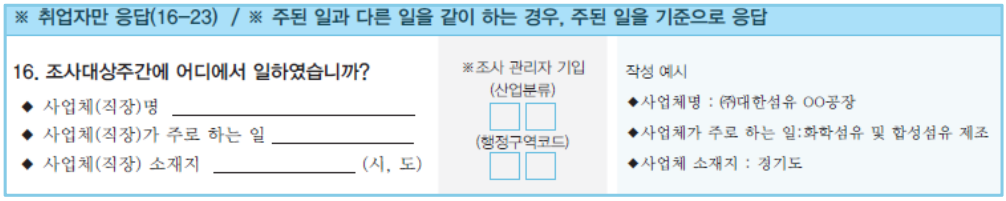
주된 일과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 어떤 일을 주된 일로 응답해야 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턴으로 일하면서 학교 앞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참가자는 인턴이 주된 일이라고 인식했지만 국밥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인턴으로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았다(gyh). 또한 주된 일로 중국어 가르치는 일을 17시간한다고 응답한 참가자의 경우, 실제로 학교에서 연구비를 받으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다(kmb). 두 기관에서 일하면서(산업인력공단과 노동청) 주당 근로시간이 각각 14시간으로 동일하여 어떤 일이 주된 일인지 질문하는 사례도 있었다(ssn).

- **(문15) '무급가족종사자' 관련 응답항목 구분 어려움**

총 일한 시간에 따라 응답항목을 어떻게 구분하여 응답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참가자가 있었다(lhy, ssn). '무급가족종사자' 용어의 이해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우선 무급가족종사자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일한 시간이 17시간 이하일 때 '①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와 '② 1~35시간' 중 어디에 응답해야 할지 어려워하였다(lhy).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용어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한 참가자는 일한 시간이 총 28시간이어서 처음에 응답항목 ②를 선택했으나 바로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참가자는 응답항목 아래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는 ② 또는 ③에 표시' 지침을 읽고 본인은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라서 응답을 취소하고 비워두었다고 하였다(ssn). 참가자는 ②와 ③을 무급가족종사자만 응답해야 하는 항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설명추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


※ 취업자만 응답(16-23) / ※ 주된 일과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경우, 주된 일을 기준으로 응답

16. 조사대상주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사업체(직장)명 _____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_____

◆ 사업체(직장) 소재지 _____ (시, 도)

※조사 관리자 기입 (산업분류) (행정구역코드)

작성 예시

◆사업체명 : ㈜대한섬유 OO공장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화학섬유 및 합성섬유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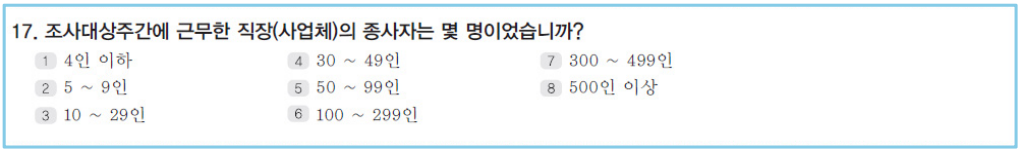
◆사업체 소재지 : 경기도

- **(문16) 사업체가 하는 일을 모르거나 질문 이해 어려움**

사업체가 하는 일에 본인이 하는 일인 '통역 및 사무실 보조'라고 응답하였고, 다시 질문하자 소속팀의 업무인 '외국인에게 통역이나 언어 지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pjy). 사업체가 하는 일로 '연구원'이라고 응답하거나(asg), '통번역'이라고 응답하여(ssn) 자신이 하는 일 중심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사업체가 하는 일에 '인턴'이라고 응답했고, 한번 더 사업체의 일에 대해 질문했음에도 '인턴'이라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hsw). 이들 사례는 사업체가 하는 일을 묻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업체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경우로 보인다.

- **(문16) 사업체 소재지로 '동'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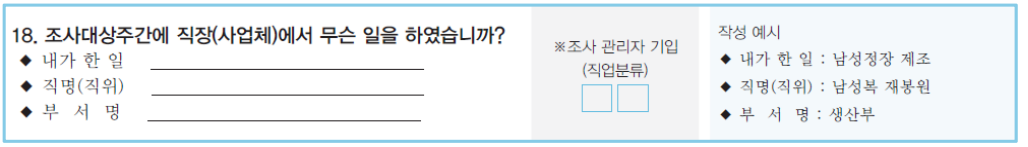
사업체 소재지로 시나 도를 응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명칭을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ysh, cgh).


17. 조사대상주간에 근무한 직장(사업체)의 종사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 4인 이하 4 30 ~ 49인 7 300 ~ 499인
2 5 ~ 9인 5 50 ~ 99인 8 500인 이상
3 10 ~ 29인 6 100 ~ 299인

- **(문17) 전체 종사자 수를 모르거나, 종사자의 범위에 대해 질문함**

소속된 사무실의 종사자 수는 알지만 전체 종사자 수는 모른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있었고(gyh, hss), 본인의 업무를 중심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종사자 수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ssn). 또한 일용직도 포함해야 하는지 묻거나, 대표를 포함하지 않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c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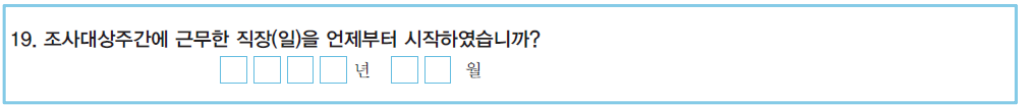

18.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내가 한 일 _____
◆ 직명(직위) _____
◆ 부 서 명 _____

※조사 관리자 기입
(직업분류)

작성 예시
◆ 내가 한 일 : 남성정장 제조
◆ 직명(직위) : 남성복 재봉원
◆ 부 서 명 : 생산부

- **(문18) '직명' 등 용어 이해 어려워하고, 정확한 정보 모름**

'직명'이나 '부서명'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하거나(gyh, hsw, hss), 용어의 뜻을 질문하는 경우(cgh, gyh)도 있었다. 이는 임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직명 또는 부서명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 조사대상주간에 근무한 직장(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 년 □□ 월

- **(문19) 정확한 시기 모르는 경우 있음**

참가자 중 일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다고 응답하면서, 정확한 시기를 모른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ysh). 정확한 시기를 모를 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 한국에서 직장이동과 관계없이 현재와 같은 일(직업)을 한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 년 □□ 개월 (예시) 영어강사 : A직장(1년 5개월) + B직장(2년) = 3년 5개월

- **(문20) 질문 이해 어려워함**

질문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거나 질문의 의미에 대해 다시 질문한 참가자가 4명이었고(ysh, cgh, hsw, gyh),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오류를 보인 참가자가 2명이었다. 응답오류를 보인 참가자는 현재의 일을 한 기간만을 산출하여 응답한 경우였다(hss, ysh). 예를 들어, 5년 동안 조리업무를 했다고 응답한 참가자의 경우, 조리업무를 한 지 40년이 넘었으며 5년 전에는 현재의 장소로 이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면접자는 "이전에도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또는 18번 항목의 내가 한 일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한 전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등을 추가 질문하여 응답오류를 밝히고 정확한 응답을 얻었다.

☞ **(질문표현)** '직장을 바꾼 것과 관계없이'를 두드러지도록 질문 내 용어 위치 변경 → '직장을 바꾼 것과 관계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현재 하고 있는 일(직업)을 총 얼마동안 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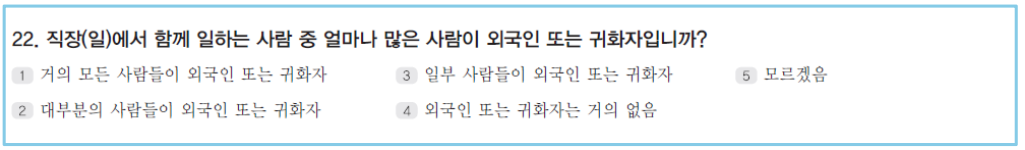
21. 지난 1년간(2015.09.15.~2016.09.14.) 직장(일)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회) 2 없었음

[21-1].	현재 직장(일)에서 근무하기 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사업체(직장)명 _____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_____ ◆ 사업체(직장) 소재지 _____ (시, 도)	※조사 관리자 기입 (산업분류) □□ (행정구역코드) □□
[21-2].	현재 직장(일)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11 개인 · 가족적 이유 12 육아 또는 가사 13 심신장애 14 정년퇴직, 연로 15 이전 직장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등) 불만족	16 현재 직장의 적극적 구인 17 직장의 휴 · 폐업 18 명예 · 조기퇴직, 정리해고 19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20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21 기타( )

- **(문21, 문21-2) 임시직을 직장으로 인식하지 않아 응답오류, '폐업' 용어 이해 어려움**

직장을 바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가자에게 "이전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나요?"라고 확인한 결과, 이전에 일을 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gyh, hss). 응답오류를 보인 참가자들은 주로 이전에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시간제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또한 '폐업'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있었다(njr).


22. 직장(일)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입니까?
1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
2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
3 일부 사람들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
4 외국인 또는 귀화자는 거의 없음
5 모르겠음

- **(문22) '거의', '일부', '대부분' 등 용어의 정확한 구분 어렵고, 주관적 판단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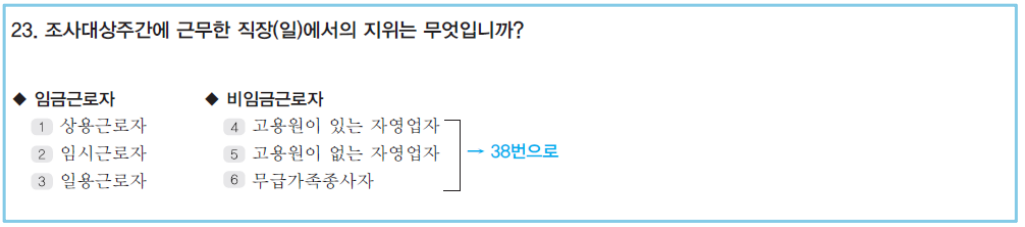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거의 모든', '일부', '대부분', '거의 없음' 등의 용어 구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일부'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의 경우 20명 중 2명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라고 응답하였고, '일부'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pjy). 반면 다른 참가자는 30명 중 10명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에 '일부'라고 응답했다(njr).

또한 본인 이외에 다른 외국인이나 귀화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참가자도 있었다(ysh, cgh). 참가자들은 '거의 없음'과 '전혀 없음'은 다른 의미라고 언급하면서 해당항목이 없다고 설명했다.

☞ **(응답항목)** 주관적인 평가 대신 객관적 평가로 전환: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몇 명인지 질문하는 것 고려(분석 시 17번 응답과 비교하여 비율 계산 가능함)

- **(문22) '귀화자' 용어이해 어렵고, 동료의 '귀화여부'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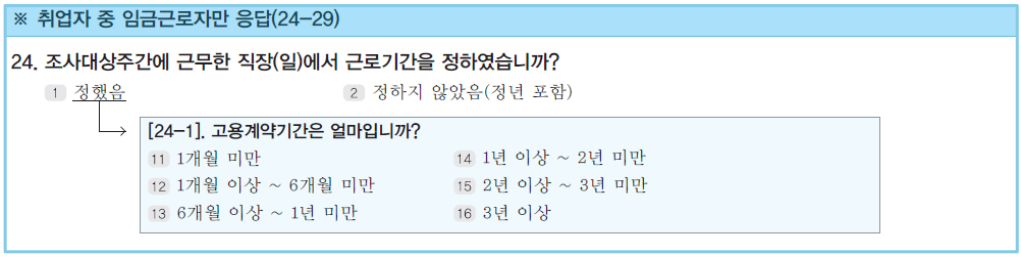
'귀화자'의 의미를 질문한 참가자가 있었고(kmb),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중 외국인이나 귀화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있었다(hss). 함께 일하는 동료의 귀화여부를 모르거나 외국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예: 재외동포) 정확한 응답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23. 조사대상주간에 근무한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 38번으로

- **(문23)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등 지위 구분 어려움**

참가자 중 8명이 지위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질문하거나 응답오류를 보였다. 계약기간이 8개월임에도 전일제가 아니어서 일용근로자로 응답한 경우(pjy), 1년 정도 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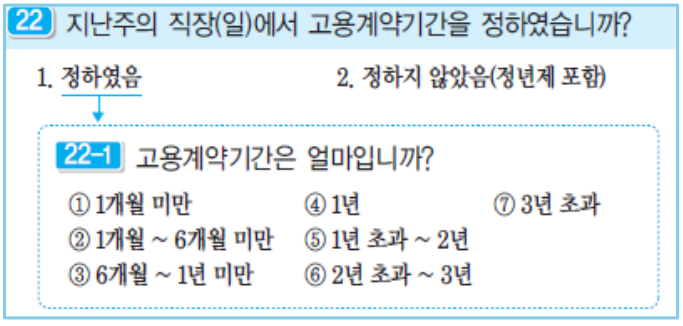
경우에도 임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njr) 등이 있었고, 자영업자이면서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ysh)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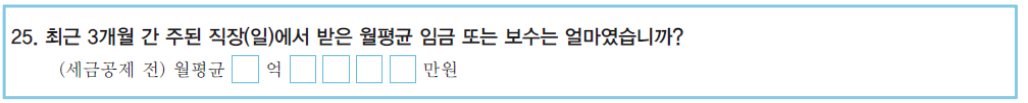
- **(문24) 근로기간 응답오류 또는 '미만', '이상' 용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에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거나, '이상' 또는 '미만' 용어 이해가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일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hss). 또한 2년마다 재계약하는 실질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가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응답하거나(kol), 공공기관에 1년 계약으로 일하는 응답자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ssn).

☞ **(응답항목 단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계약기간 질문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응답항목의 단위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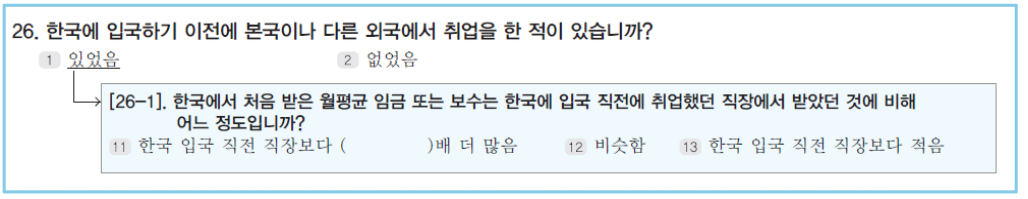
[참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계약기간 관련 질문



- **(문25) 3개월 합산금액을 응답하거나 질문이해 어렵다고 응답**

참가자 중 2명이 3개월 합산금액으로 응답하는 응답오류를 보였다. 300만원(pjy) 또는 460만원(ssn)을 응답한 참가자에게 1개월에 받은 금액인지 다시 질문하자 3개월 합산 금액이라고 응답했으며, 월평균 금액을 응답해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참가자도 있었다(cgh).

☞ **(질문용어)** 질문에 '1개월' 용어를 포함하여 기준기간에 대한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월평균 → 1개월 평균
☞ **(응답보기)** 일반적인 월평균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응답보기 단위 축소 → 만원
☞ **(입력단위)** 외국인의 경우, 천원단위의 금액 입력방식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 입력 단위 표기에 대한 검토 필요



- **(문26-1) 임금 비교 표현, '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어려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한 참가자는 한국 입국 전 인도네시아의 직장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6-1번의 11번을 선택했다(gyh). 이 응답오류는 면접자가 어떤 국가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았는지 질문했을 때 발견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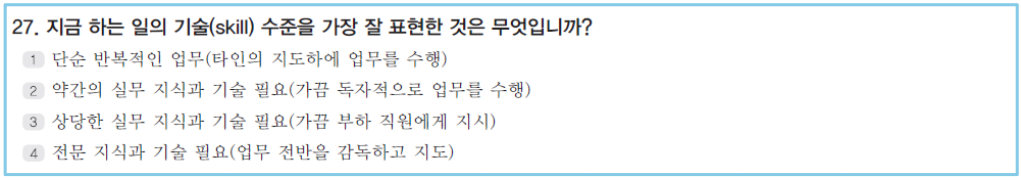
또한 한국에서 1배 더 받는다고 응답한 참가자(cgh)에게 받은 금액이 같았는지 질문하자 '곱절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배를 1배로 잘못 응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응답항목)** 응답항목의 내용을 단순하게 수정할 필요 있음
→ 예) 한국 직장에서 더 많이 받음 / 비슷함 / 한국 직장에서 더 적게 받음
→ 한국 직장에서 더 많이 받은 응답자 대상으로 몇 배인지 질문을 분리하여 제시

- **(문26-1) 현재 임금과 비교하는 응답 오류 발생, 과거시점 국가 간 화폐가치 반영 비교 어려움**

한국 입국 전 직장보다 1.5배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현재와 20년 전의 임금과 비교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임금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kol). 이 응답자의 경우, 한국에서 처음 받은 월급이 아닌 현재의 월급과 비교하는 응답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에서 처음 받은 임금과 본국의 임금을 당시의 화폐가치 차이를 계산하여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응답자도 있었다(njr).

☞ **(질문내용)** 정확한 응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질문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27. 지금 하는 일의 기술(skill)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단순 반복적인 업무(타인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
2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 필요(가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
3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 필요(가끔 부하 직원에게 지시)
4 전문 지식과 기술 필요(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지도)

- **(문27) 기술 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정확한 평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참가자들은 응답항목 선택을 어려워했고, 응답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어서 기술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응답하기도 했는데, 기술 수준보다는 괄호 안에 제시된 업무형태를 참고하여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1번이라고 응답한 2명은 외국인 지원 업무를 주2회 수행하는 결혼이민자(pjy)와 번역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는 유학생(hss)이었다. 이들은 스스로 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언어능력 외에 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시간제 근로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2번이라고 응답한 5명은 인도네시아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석사과정 유학생(gyh),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결혼이민자(ssn), 미용실에서 미용업무를 배우기 시작한 응답자(hsw), 컴퓨터 회선 연구하는 박사수료 연구원(kmb),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는 박사(asg)였다. 이들은 응답이유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ssn, asg), 실무와 관계가 없어서(kmb), 미용실은 기술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hsw), 고용인이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서(gyh) 등을 언급했다.

3번이라고 응답한 4명은 통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는 석사과정 유학생(yla), 외국어 담당 대학교수(kol), 철근구조물 설비 근로자(lgj), 식당종업원(cgh)이었다. 철근구조물 설비는 3~5년 배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lgj), 식당종업원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끔 업무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cgh)이라고 응답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4번이라고 응답한 참가자는 1명(pyh)으로, 캐나다 이민경험이 있는 재외동포로 과거 과외 일을 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해당항목에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대학 원어민 강사 참가자도 있었다(njr).

☞ **(응답항목)** 괄호 안과 밖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③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더라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음 → 괄호 내용 삭제

☞ **(항목구분)** ③과 ④의 문장 내용 구분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상당하다'의 의미가 수준이나 실력이 꽤 높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함

☞ **(응답항목)** 응답항목 간 단순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간결하게 수정 고려 →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식이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음, ② 조금 낮은 편임, ③ 조금 높은 편임, ④ 매우 높은 편임'

28.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근로시간, 임금, 노동강도는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음	약간 많음	비슷함	약간 적음	매우 적음
1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2 임금	①	②	③	④	⑤

	매우 강함	약간 강함	비슷함	약간 약함	매우 약함
3 노동강도	①	②	③	④	⑤

- **(문28) 객관적 평가 어렵고, 사회적 고정관념 반영된 응답 경향**

한국인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참가자에게 '한국인과 비교하여 응답했는지', '본인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재 질문하자 유사상황의 한국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임금이 약간 적다고 응답한 교수의 경우 학과 전체 교수가 성과급을 낮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kol). 또한 시간제 업무를 하는 참가자가 한국인에 비해 근로시간이 약간 많다고 응답했는데, 한국인 임시직의 근무시간 및 임금과 비교하면 본인이 더 나은 편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은 상황을 생각했다고 언급했다(pjy). 이는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하여 응답하지 않고, 외국인의 고용상황 등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 등을 반영하여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응답항목)** '노동강도'의 사전적 의미는 단위 시간 안에 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량으로 노동시간이 길면 강도는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대체로 '노동강도'는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로감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노동강도'를 '일의 양' 등 단순하게 측정 가능한 용어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질문표현)** 본인의 상황에 대해 응답하도록 질문내용을 변경할 필요 있음 →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할 때, 본인의 근로시간, 임금, 노동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수정

☞ **(응답대상)**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응답이 어려울 수 있음

- **(문28) 근로조건을 비교 응답하지 않고, 일 자체의 질에 대해 평가하기도 함**

근로시간과 노동강도가 약간 많다고 응답한 참가자에게 이민자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다르냐고 질문하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한국인과 비슷한 상황이며 일 자체에 대해 평가한 것이라고 응답했다(hsw). 또한 근로시간, 임금, 노동강도 모두 약간 적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근로시간이 적어서 임금이 적은 것이라고 응답했다(gyh).

29. 현재 직장의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1 임금(월급)	①	②	③	④	⑤	
2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3 작업장 환경 및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4 고충처리	①	②	③	④	⑤	
5 승진기회	①	②	③	④	⑤	⑨
6 퇴직금, 출산(육아)휴직, 휴가 등 복지수준	①	②	③	④	⑤	⑨
7 숙소, 급식 및 휴게시설	①	②	③	④	⑤	⑨
8 한국인 직장 동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⑨
9 한국인 직장 상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⑨
10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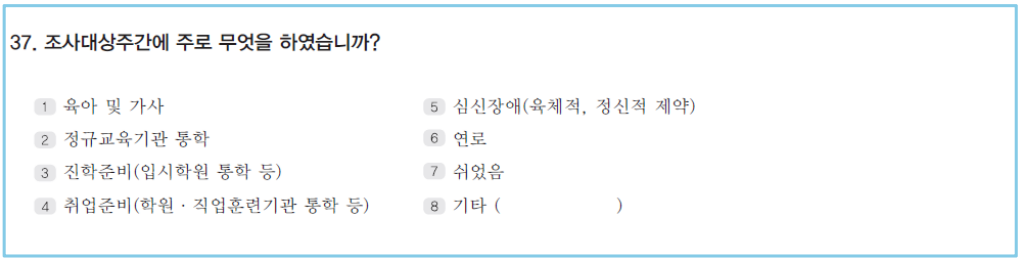
→ 38번으로

- **(문29) '고충처리', '승진기회' 등 용어 이해 어려움**

'고충처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참가자가 8명이었고(cgh, gyh, hss, kmb, njr, bjo, yla, asg), '승진기회'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참가자도 3명이었다(gyh, hss, njr). 또한 '전반적인', '급식', '동료' 등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참가자도 있었다(cgh, kmb).

☞ **(용어검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응답항목의 용어는 가능한 풀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고충처리 → 직장 내 어려움 발생 시 해결
- 휴게시설 → 휴식 공간

☞ **(항목구분)** 응답항목의 구분 및 용어에 대한 검토 필요
- '③작업장 환경 및 안전도'에서 환경이 안전도를 포괄함 → '③작업장 환경(청결도 및 안전도)'와 같이 수정 고려
- '⑥퇴직금, 출산(육아)휴직, 휴가 등 복지수준'에서 복지수준의 포괄범위 넓음 → 복지수준 용어 삭제 고려, '⑥퇴직금, 출산(육아)휴가 및 휴직'으로 수정 제안
- 퇴직금과 휴가/휴직은 응답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응답항목 분리 고려
- '⑦숙소, 급식 및 휴게시설'에서 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또는 급식에 대한 만족도로 다른 해석이 가능함 →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급식에 대한 만족도 응답항목 구분할 필요 있음


37. 조사대상주간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 육아 및 가사
2 정규교육기관 통학
3 진학준비(입시학원 통학 등)
4 취업준비(학원 · 직업훈련기관 통학 등)
5 심신장애(육체적, 정신적 제약)
6 연로
7 쉬었음
8 기타 ( )

- **(문37) '연로' 등 용어 이해 어려워 함**

'연로'의 의미에 대해 질문한 참가자가 있었으며(lhy, yla, ssn), '진학준비'(yla), '정규'(njr), '육체적'(njr) 등의 용어가 생소하다면서 의미를 질문한 참가자도 있었다.

☞ (질문표현) 응답항목을 고려할 때 질문을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용어검토) 응답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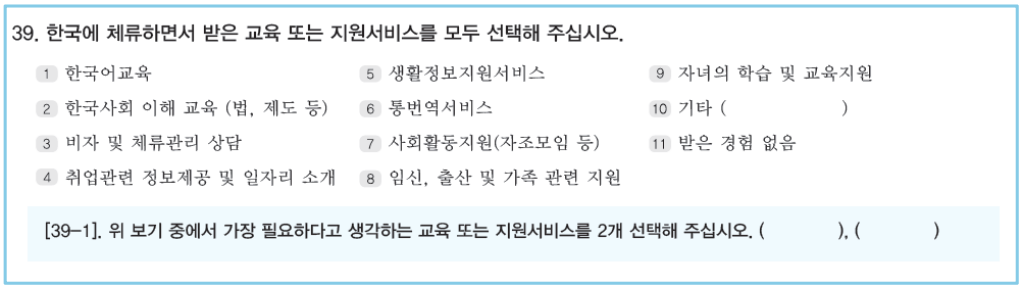
② 정규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등) 통학

③ 학교 입학을 위한 공부

⑤ 심신 장애 → 육체적·정신적 질병

⑥ 연로 → 나이가 많음

3) 교육



39. 한국에 체류하면서 받은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한국어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법, 제도 등)
3 비자 및 체류관리 상담
4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일자리 소개
5 생활정보지원서비스
6 통번역서비스
7 사회활동지원(자조모임 등)
8 임신, 출산 및 가족 관련 지원
9 자녀의 학습 및 교육지원
10 기타 ( )
11 받은 경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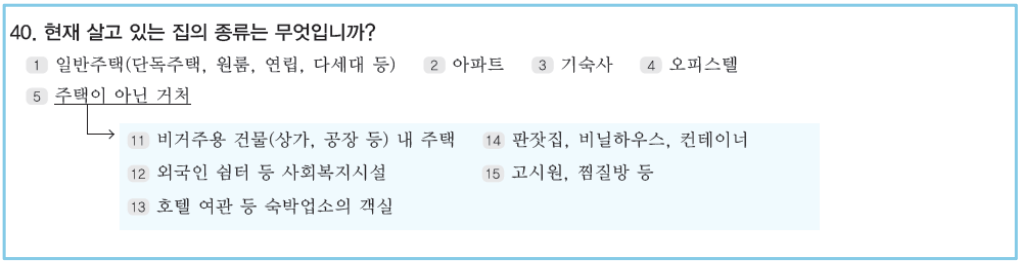
[39-1]. 위 보기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를 2개 선택해 주십시오. ( ), ( )

- **(문39-1) '없음' 응답 시 응답 및 응답기준에 대한 질문**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가 없다고 생각하여 무응답한 참가자가 있었다(pyh). 이와 같이 필요한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응답항목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보기의 '11. 받은 경험 없음'을 선택하기에는 해당 응답항목의 표현이 부적절하다. 한편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는 이민 초기에 본인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질문한 참가자가 있었다(ssn).

☞ (용어검토) 문39의 응답항목 중 '⑪ 받은 경험 없음' → '⑪ 없음'으로 수정 고려

4) 주거 및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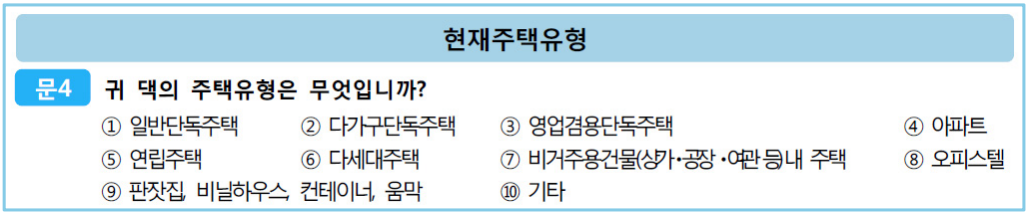


- **(문40) 대부분 응답항목 선택에 어려움은 없으나, '판잣집' 등 용어 이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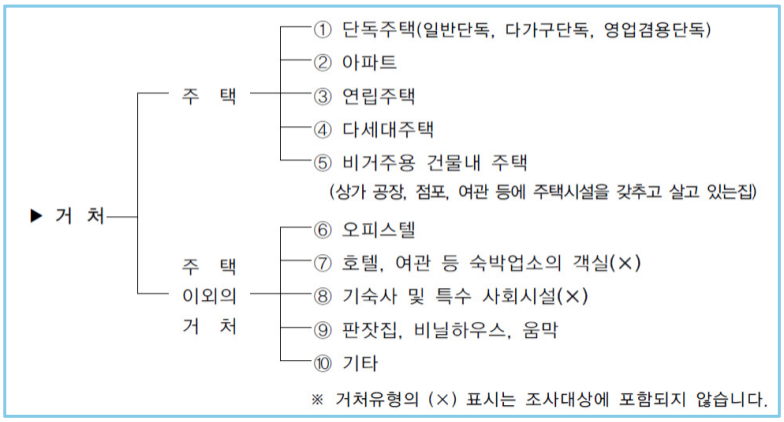
대부분의 참가자가 일반주택(원룸, 빌라 등)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응답항목 선택에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참가자 중 '판잣집' 용어의 의미에 대해 질문한 경우가 있었다(lhy, yla, ssn).

☞ **(항목구분)** 응답항목 간 구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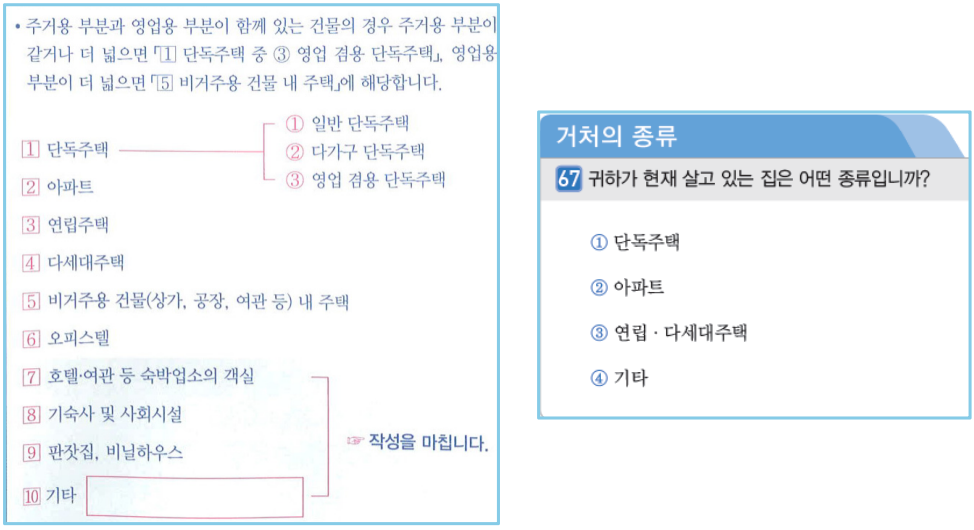
- 일반주택: 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로, 다른 응답항목을 포괄할 수 있음 →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정의되는데, 응답자 입장에서 둘 간 정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음
- ⑪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 상위범주에 '⑤ 주택이 아닌 거처'로 명시되어 있어서 '⑪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포함된 '주택' 단어의 포괄범위가 모호함
- 고시원과 찜질방을 같은 응답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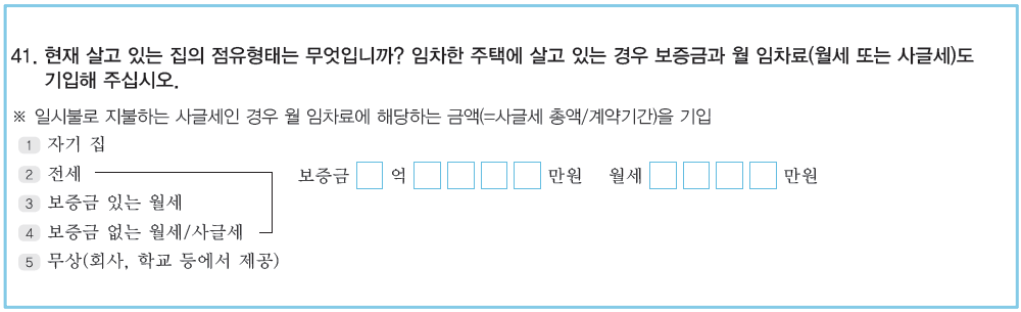
[참고]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의 주택유형 관련 질문



[참고]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지침서 내용: 거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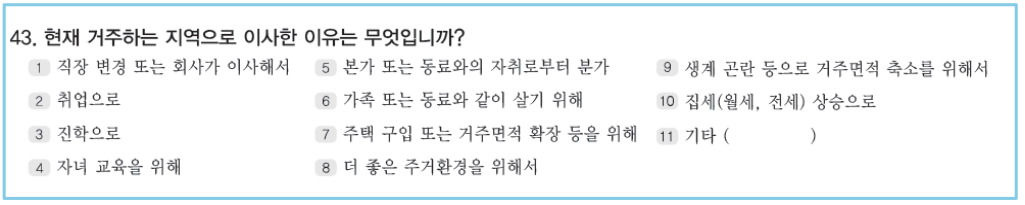
[참고] 2015 인구주택총조사(좌)와 2016 사회조사(우)



• **(문41)** 응답항목 구분 어려움

시댁 가족 소유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결혼이민자(ssn)는 '1.자기 집'을 선택하기 전에 한참 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자가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질문하기도 했는데(gyh), 장학금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응답항목)**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입주도우미로 거주'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례 고려


43.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직장 변경 또는 회사가 이사해서
2 취업으로
3 진학으로
4 자녀 교육을 위해
5 본가 또는 동료와의 자취로부터 분가
6 가족 또는 동료와 같이 살기 위해
7 주택 구입 또는 거주면적 확장 등을 위해
8 더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9 생계 곤란 등으로 거주면적 축소를 위해
10 집세(월세, 전세) 상승으로
11 기타 ( )

• **(문43) 유사 항목 및 응답 항목 용어 검토 필요**

직장과 가까워서 이사했다면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질문한 참가자가 있었다(ysh, lyc). 이 경우, ①번 항목의 '직장 변경 또는 회사가 이사해서'와 유사해 보이지만, 직장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gyh), 기타를 선택하고 '장학금'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⑨번과 ⑩번이 둘 다 해당한다면서 선택을 어려워 하거나(lgj) ⑦번과 ⑧번에 둘 다 해당한다는 참가자(kol)도 있었다.

☞ **(항목구분)** 응답항목 구분 검토 및 통합 고려
- ① 직장 변경 또는 회사가 이사해서 → 직장과 가까워서
- ② 취업으로 → 직장과 가까워서
- ⑨번과 ⑩번 통합 → 기존의 집보다 집세가 더 저렴해서

• **(문43) 42번과 연계하여 지난 1년간 이사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경향**

42번에서 지난 1년간 이사한 경험을 질문하고, 43번에서 이사 이유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지난 1년간 이사한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이사한 경험이 없다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ssn, kol). 또한 이민가기 전인 30년 전부터 머물렀던 곳이라면서 현재 거주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머문 경우에 응답항목 선택을 어려워했다(yhm). 조사지침서에는 한국 입국 후 이사한 적이 없었더라도 현 거주지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기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자기기입식 응답 시에는 이를 인지할 수 없을 수 있다.

☞ **(질문표현)** 질문에서 '이사한 이유' 용어 대신 '거주 이유' 표현 사용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43) '자취', '생계' 등의 용어 이해 어려움**

'자취'나 '생계' 등의 용어 이해가 어렵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있었다(pjy, njr). 또한 ⑤번 항목의 '동료와의 자취로부터 분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kol), 동료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살기 위해 이사하여 ⑤번에 해당하는 데도 이해하지 못해 '기타'라고 응답한 참가자도 있었다(hsw).

4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2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①	②	③	④	⑤
3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	①	②	③	④	⑤
4 대기오염 정도	①	②	③	④	⑤
5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병원, 의료복지시설 등 접근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7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환경	①	②	③	④	⑤
9 전반적인 주거환경	①	②	③	④	⑤

- **(문44) '전반적인'. '치안' 등 용어, 매트릭스 응답형식 이해 어려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용어들이 많았다. '전반적인'(ysh, yhm, njr, lyc), '치안'(lyc, cgh, yla), '접근용이성'(njr, asg), '대기'(njr, pjy, lyc), '이웃'(gyh) 등의 용어에 대해 의미를 질문했다. 또한 매트리스 형태의 응답형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을 어려워한 경우도 있었다(y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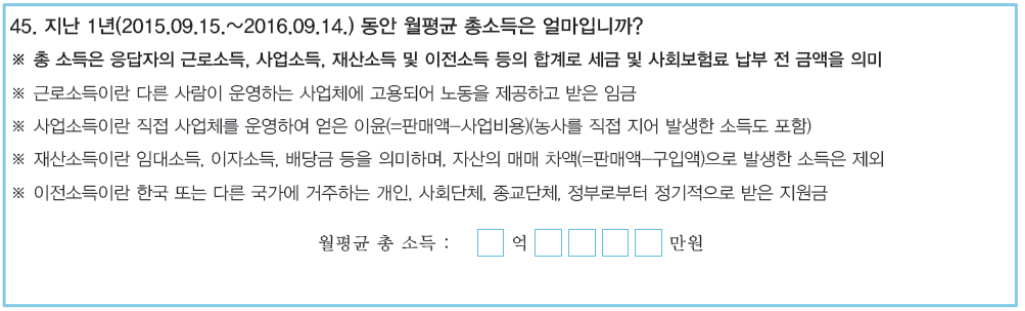
☞ **(디자인)** 매트릭스 형태의 제시방식은 응답항목이 모두 각각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여 기술하지 않고 축약하여 기술하는 경향이 높음(변경 전 예: 접근용이성) → 매트릭스를 나열식으로 변경하고, 각 응답항목을 설명하면서 질문하거나(변경 후 예: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까?), 응답항목의 수를 줄이고 단순하게 수정하는 방안 고려

☞ **(항목번호)** 응답항목 번호 ⑨를 ⑧로 수정

- **(문44) 본인과 관련 없는 응답항목에 대해 평가 어려워 함**

응답항목이 본인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잘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없는 참가자는 교육환경 항목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하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lgj),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lyc). 조사지침서에는 자녀가 없더라도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육환경을 이용하는 자녀가 없는 참가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5) 소득과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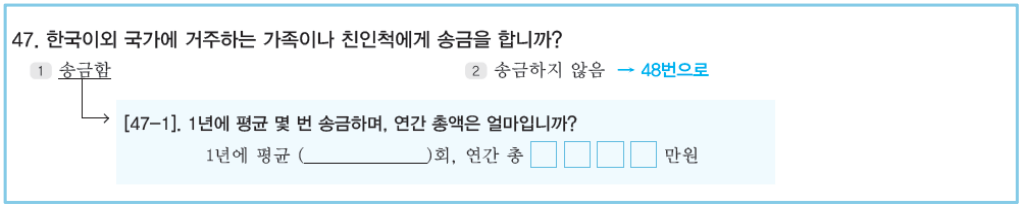

45. 지난 1년(2015.09.15.~2016.09.14.) 동안 월평균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 총 소득은 응답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전 금액을 의미
※ 근로소득이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
※ 사업소득이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이윤(=판매액-사업비용)(농사를 직접 지어 발생한 소득도 포함)
※ 재산소득이란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금 등을 의미하며, 자산의 매매 차액(=판매액-구입액)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외
※ 이전소득이란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 사회단체, 종교단체,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지원금
월평균 총 소득 : 억 만원

- **(문45) 금액오류: 기준기간 오류, 자영업자 총수입액 보고, 세전금액 응답 등**

1개월 금액이 아닌 1년 소득을 응답하는 오류를 보인 참가자가 있었다(ysh, pjy). 또한 자영업자인 참가자가 사업지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총수입액을 보고한 경우도 있었는데, 하루 수입을 60만원으로 산정하여 전체 금액을 대충 계산했다고 보고하면서 자영업자는 정확한 소득 응답이 어렵다고 호소했다(ysh). 세전금액이 아닌 세후금액을 응답하면서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있었고(asg, ssn, hss, lyc), 남편의 소득을 적고 이후 면접 시 본인 소득은 없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lhy).

- **(문45) '총소득', '월평균' 용어 이해 어려움**

'총소득'(cgh, hsw), '월평균'(gyh) 등의 용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질문한 참가자가 있었다. 또한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참가자가 해당 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글이 많아서 읽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hsw).


47. 한국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금을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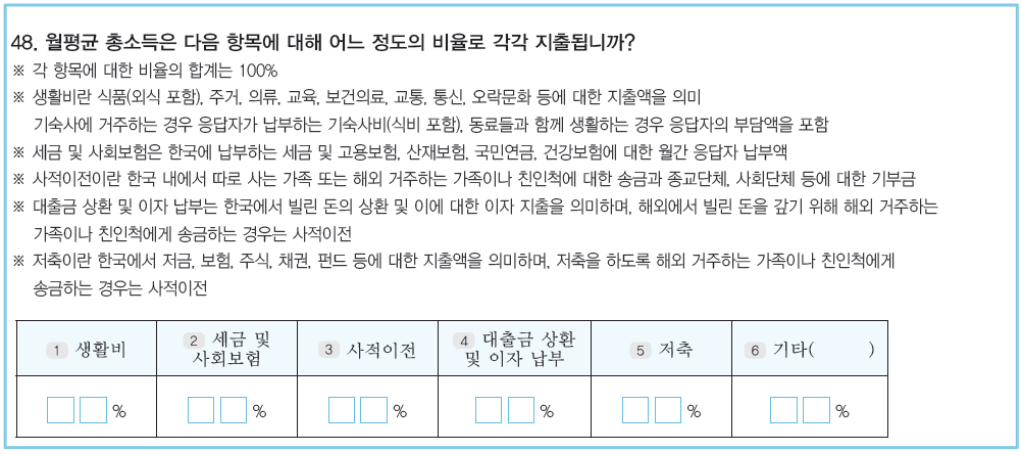
① 송금함 ② 송금하지 않음 → 48번으로

[47-1]. 1년에 평균 몇 번 송금하며, 연간 총액은 얼마입니까?

1년에 평균 (_____)회, 연간 총 □□□□ 만원

- **(문47) 예외적인 송금 사례 발생**

유학생의 경우 오히려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며(hss, kmb), 소득이 2개 국가에서 발생하여(한국에서의 근로소득과 본국에서 받는 연금) 본국에서 받는 연금을 송금한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있었다(cgh). 조사지침서에 응답자 보유 현금에 기초한 송금만 해당하며 배우자나 가족 등이 보유한 현금을 송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보통의 기혼자 가구에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정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응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8. 월평균 총소득은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각각 지출됩니까?

※ 각 항목에 대한 비율의 합계는 100%

※ 생활비란 식품(외식 포함), 주거, 의류, 교육, 보건의료, 교통, 통신, 오락문화 등에 대한 지출액을 의미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응답자가 납부하는 기숙사비(식비 포함),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응답자의 부담액을 포함

※ 세금 및 사회보험은 한국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월간 응답자 납부액

※ 사적이전이란 한국 내에서 따로 사는 가족 또는 해외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송금과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납부는 한국에서 빌린 돈의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출을 의미하며,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해외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사적이전

※ 저축이란 한국에서 저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등에 대한 지출액을 의미하며, 저축을 하도록 해외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사적이전

① 생활비	② 세금 및 사회보험	③ 사적이전	④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납부	⑤ 저축	⑥ 기타( )
□□%	□□%	□□%	□□%	□□%	□□%

- **(문48) 지출항목별 비율 계산 어려워함**

참가자들은 응답하는 것이 어렵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거나(cgh, hsw, ysh, ssn, kol), 전체 합이 100%가 되지 않고(gyh), 지출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는 등 응답오류를 보였다(gyh, pyh, lyc).

참가자들의 응답과정을 보면, 비율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 금액을 떠올린 후 다시 비율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가자들은 계산기를 사용하여 총액을 비율로 계산하기도 하면서(kol), 이중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asg).

- **(문48) '사적이전' 등 용어 이해 어려움**

참가자 중 '사적이전'(bjo, lhy, yla, asg, njr, gyh), '기부금'(lhy), '납부'(njr), '저축'(gyh, hsw) 등의 용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 **(항목용어)** 사적이전 용어를 가족 송금 및 기부금 등으로 직접 표기

49. 지난 1년(2015.09.15.~2016.09.14.) 동안 다음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1 식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끼니를 거른 적이 있었다	①	②
2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①	②
3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운 적이 있었다	①	②
4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자리를 잃어버린(권고사직, 강제퇴직 등)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①	②
5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①	②
6 집세(월세, 전세금)의 상승으로 이사한 적이 있었다	①	②

- **(문49) 질문 내용에 대해 민감한 반응 보임**

참가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묻는 질문 내용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거나, 해당 사례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면 뭘 보태주나요?"(yhm)라고 묻거나, "돈이 모자라서 밥을 못먹는다는 말입니까?"(pjy)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기 싫어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참가자도 있었다(h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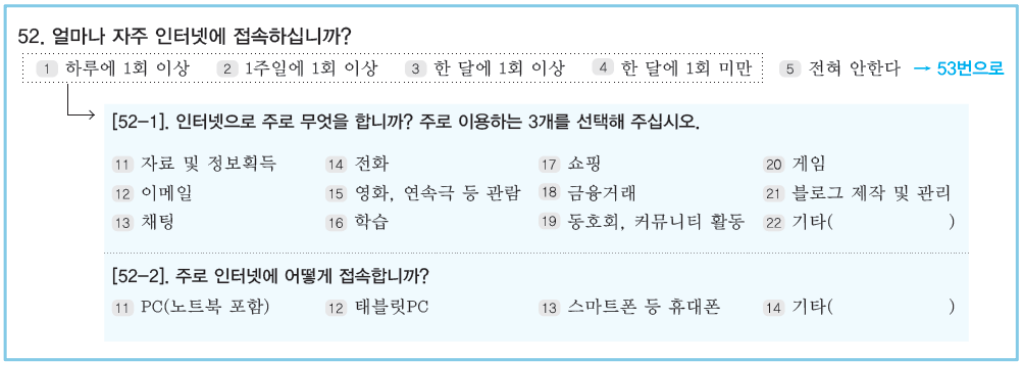
☞ **(질문내용)** 민감한 질문으로 정확한 응답을 얻기 어려우며, 소득 관련 질문으로 기본적인 생활수준과 어려움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해당 질문 삭제 고려

☞ **(항목표현)** 포함해야 한다면 '① 식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끼니를 거른 적이 있었다', '⑤ 공과금( )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등의 표현 순화 필요

- **(문49) 기준 기간에 대한 미인식, '권고사직' 등 용어 이해 어려움**

응답기준이 되는 기간을 인식하지 않고 응답기준(지난 1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 응답한 참가자가 있었다. '있음'으로 응답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한 결과, 관련 경험이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lgj). 또한 '끼니'(pjy), '충당'(pjy), '권고사직'(lhy, pjy) 등의 용어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6) 보건 및 정보화


52. 얼마나 자주 인터넷에 접속하십니까?

1 하루에 1회 이상 2 1주일에 1회 이상 3 한 달에 1회 이상 4 한 달에 1회 미만 5 전혀 안한다 → 53번으로

[52-1]. 인터넷으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이용하는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1 자료 및 정보획득	14 전화	17 쇼핑	20 게임
12 이메일	15 영화, 연속극 등 관람	18 금융거래	21 블로그 제작 및 관리
13 채팅	16 학습	19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22 기타( )

[52-2]. 주로 인터넷에 어떻게 접속합니까?

11 PC(노트북 포함)	12 태블릿PC	13 스마트폰 등 휴대폰	14 기타( )

- **(문52) '인터넷 접속'에 대해 정확히 이해 못함**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가자에게 본국의 채팅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이용하지 않는지 질문하자, 응답내용을 바꾸어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답한 참가자가 있었다(cgh). 또한 "본국 인터넷을 말하나요? 한국 인터넷을 말하나요?"라고 질문하거나(lyc), "접속은 회원가입을 말하는 건가요?"(hss)라고 질문하면서 인터넷 접속 관련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 **(질문표현)**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
☞ **(질문순서)** 52-1번과 52-2번의 질문 순서 변경하여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임을 인식하도록 유도

- **(문52) 응답항목 범위 검토 필요**

응답항목 선택 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참가자는 '4. 한 달에 1회 미만'과 '5. 전혀 안한다'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asg) 접속 횟수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사지침서에는 한 달에 1회 미만은 두 달에 1번 정도 인터넷 접속을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시된 응답항목의 용어만으로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항목범위)** 인터넷에 자주 접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응답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범위를 결정할 필요 있으며, 시험조사 결과 참고하여 항목범위 적절성 평가 가능함
☞ **(항목단위)** '이상'의 단위만 제시되어 있고, '~ 회 까지'인지 제한횟수는 제시하지 않아, 단위를 구체화할 필요 있음 → 예: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3-4일, ③ 1주일에 1-2일, ④ 한 달에 1-2회, ⑤ 전혀 안 한다.

- **(문52-1) '금융거래', '획득' 등의 용어 이해 어려워 함**

'금융거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참가자가 있었고(hsw), '정보획득'의 '획득'이 '확대'를 의미하는지 질문한 참가자도 있었다(pjy). 이 밖에 응답항목 중 "뉴스는 없네요?"라고 질문한 참가자(yhm), 인터넷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3개 이상을 선택한 참가자(pjy)가 있었다. 또한 52-2번에서 PC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선택한 참가자도 있었다(gyh).

7) 사회참여

53. 한국에서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한국에서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문53) '고려할 때' 용어 이해 어려움**

'고려할 때'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 의미를 질문한 참가자들이 있었다(gyh, pjy).

☞ **(질문표현)** 질문을 '현재 한국에서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수정

54.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외로움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자녀양육 및 교육
④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이용
⑤ 경제적 어려움
⑥ 언어 문제
⑦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
⑧ 편견과 차별
⑨ 기타 ( )
⑩ 어려운 점 없음

- **(문54) '편견', '차별', '관습', '시군구청' 등에 대한 용어 이해 어려움**

'편견'의 의미에 대해 질문한 참가자가 있었고(lyc, pjy), '차별'(lyc), '관습'(pjy) 등 용어의 뜻을 질문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시군구청'이 포함된 ④번 항목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며(lyc, pjy), 어려운 점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선택한 참가자가 구체적인 의미를 묻자 "가족이 보고 싶다는 뜻 아닌가요?"라고 응답하기도 했다(pj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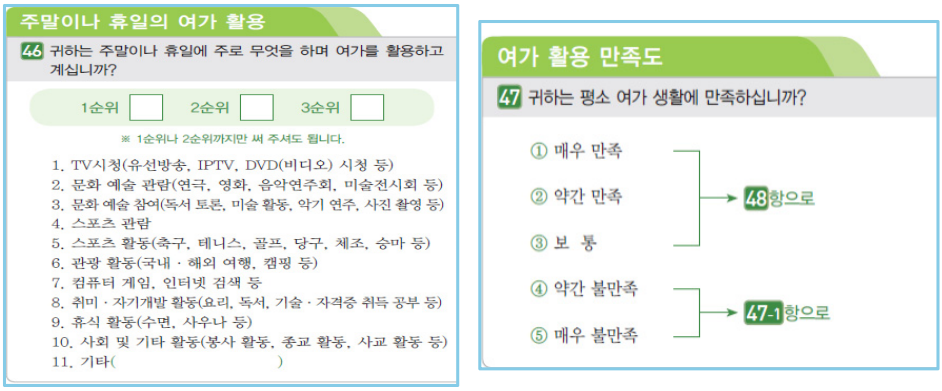
☞ **(항목용어)** ⑦ '관습' → 삭제(없어도 의미가 통함)
⑧ '편견과 차별' → 외국인에 대한 오해와 무시

55.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문55) '여가생활'의 의미 이해 어려움, 여가생활 만족의 기준 모호**

'여가생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참가자들이 있었다(bjo, kmb, pjy, cgh, lyc). 또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응답한 경우에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는 데, 예를 들어 취업자가 아닌 참가자의 경우 "여가생활을 따로하지는 않지만 매일 먹고 노니까 만족한다"고 설명하면서 '매우 만족'을 선택했고(yhm), 산업재해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 참가자는 "함께 치료받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기도 한다"면서 '약간 만족'을 선택했다(lgj).

☞ **(질문내용)** 여가 생활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것보다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지 질문한 후 추가로 여가생활 만족도를 질문하면 여가생활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 가능 → 예, 평소 퇴근 이후나 휴일 등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참고] 2015년 사회조사 (여가활용 관련 질문)

56. 다음 각 대상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매우 큼	어느 정도 있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1 내가 살고 있는 동네(시군구)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국가(한국)	①	②	③	④	⑤
3 본국(귀화자는 귀화 전 국적 국가)	①	②	③	④	⑤

- **(문56) '소속감' 용어 이해 어려움**

'소속감'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소속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한 참가자가 8명이었고(lgj, lyc, cgh, gyh, pjy, bjo, lhy, ysh), 소속감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응답한 참가자들도 소속감에 대한 이해내용이 달랐다. 예를 들어, 소속감의 의미에 대해 '정을 느끼는 것'(asg),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yla) 등으로 응답하였다. 한국과 본국(중국)에 대한 소속감을 '어느 정도 있음'으로 응답하면서, 각각의 이유에 대해 '한국에 살고 싶어서'와 '중국인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참가자도 있었다(hsw). 이들 사례는 소속감에 대한 이해가 부정확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 **(질문표현)** '자신이 다음 각 항목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십니까?'로 질문을 수정하거나, 또는 소속감(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의 의미를 괄호로 기술

57. 다음 사회단체의 가입 및 활동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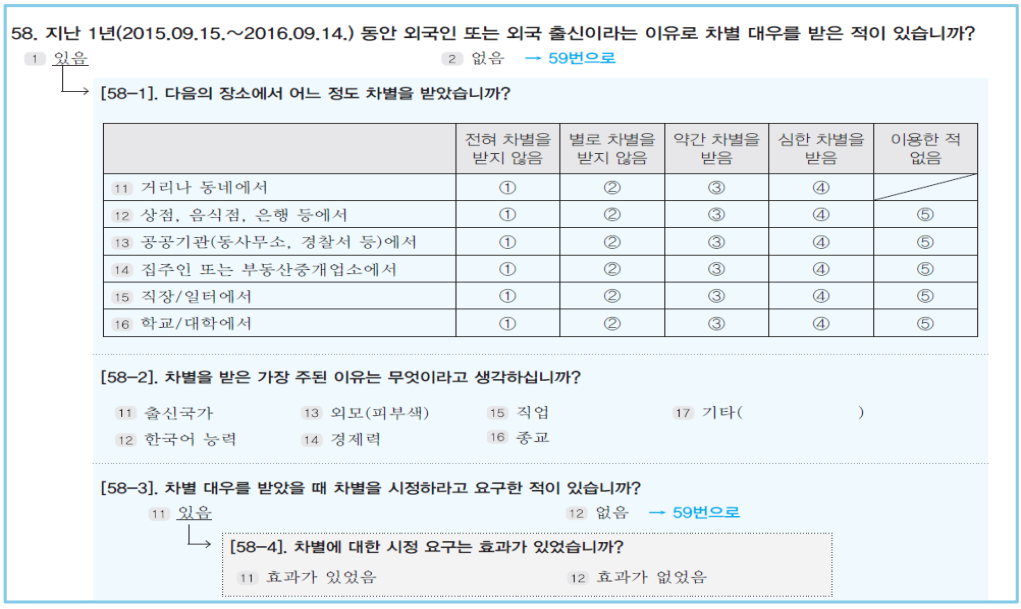
	가입하지 않음	가입은 했지만 활동은 안함	가입했고 활동에도 참여함
1 정당	①	②	③
2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3 시민운동단체(환경, 인권, 봉사 등)	①	②	③
4 본국(귀화자는 귀화 전 국적 국가) 중심 종교단체	①	②	③
5 한국인 중심 종교단체	①	②	③
6 본국(귀화자는 귀화 전 국적 국가) 중심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포함) 및 친목단체(친구모임)	①	②	③
7 한국인 중심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포함)및 친목단체(학부모회, 지역 주민회, 학교 동창회 등)	①	②	③

- **(문57) '정당' 등 용어 이해 어려움**

'정당' 용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참가자들이 있었다(lgj, lyc, gyh, hsw, hss, lhy). 또한 '친목단체'(yla), '~중심'(lhy), '노동조합단체'(hsw) 용어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응답오류도 발견되었는데, 구호단체에 매월 기부하는 활동을 '시민운동단체' 활동으로 응답한 경우(lgj), 직장 동료들과 운동 및 회식하는 활동을 '한국인 중심 동호회 및 친목단체'로 응답한 경우(kmb)도 있었다. ⑥번 항목에서 친구모임이 예시로 제시된 것에 대해 친구모임이 단체활동인지 묻는 참가자가 있었으며(hss),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용어검토)** 정당 → 정당(정치단체)



58. 지난 1년(2015.09.15.~2016.09.14.) 동안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 59번으로

[58-1]. 다음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습니까?

	전혀 차별을 받지 않음	별로 차별을 받지 않음	약간 차별을 받음	심한 차별을 받음	이용한 적 없음
11 거리나 동네에서	①	②	③	④	
12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①	②	③	④	⑤
13 공공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등)에서	①	②	③	④	⑤
14 집주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①	②	③	④	⑤
15 직장/일터에서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대학에서	①	②	③	④	⑤

[58-2]. 차별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출신국가 13 외모(피부색) 15 직업 17 기타( )
12 한국어 능력 14 경제력 16 종교

[58-3].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11 있음 12 없음 → 59번으로

[58-4].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11 효과가 있었음 12 효과가 없었음

- **(문58) '차별대우', '출신' 등의 용어 이해 어려워 함**

'차별대우'(lhy, ysh), '출신'(lhy) 등의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있었다.

59.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 있습니까?

	① 있음		없음
	한국인	본국인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 ) 명	( ) 명	②
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 ) 명	( ) 명	②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 명	( ) 명	②

- **(문59) 도움 받을 의지가 없거나, 도움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 의문**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도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몸이 아플 경우 함께 병원에 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고(hsw, hss),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참가자도 있었다(ysh). 또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잘 빌릴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는 참가자도 있었다(lyc).

한편,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나(cgh), 한국 또는 본국 중 어떤 곳에서의 상황인지 질문한 참가자도 있었다(gyh).

☞ **(응답항목)** 본국인 외에 외국인과 관계있을 가능성 고려할 필요 있음

- **(문59) ‘낙심’ 용어 이해 어려워 함**

‘낙심’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참가자들이 있었다(pjy, kmb, lhy, yla).

☞ **(용어검토)** 낙심하거나 → 슬프거나

8) 한국어능력

60.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본국어는 국적 국가의 언어 또는 귀화 전 국적 국가의 언어, 모국어는 출생국가의 언어

1 한국어 2 응답자의 본국어 또는 모국어 (한국어 제외) 3 배우자의 본국어 (한국어 제외) 4 기타( )

• **(문60) 본국의 가정을 연상, 이중언어 사용,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 모호**

가정을 본국 가정으로 생각하고 응답하거나, 한국과 본국 중 어떤 가정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지 질문한 참가자들이 있었다(gyh, hss, hsw, lgj). 특히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이민자의 경우, 본국의 가정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 친구 및 동료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정'이라는 단서가 애매하다고 언급한 참가자(yla), 남편이 한국인인 참가자의 경우 남편 및 자녀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응답(njr)도 있었다.

☞ **(용어검토)**
- 가정에서는 → 현재 한국의 집에서는
- 배우자 → 배우자(또는 동거인)

☞ **(항목추가)** 항목 추가: 한국어와 본국어를 비슷하게 사용

62.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 63번으로

[62-1].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하고, 각각의 교육 기간 또는 수료 단계를 적어 주십시오.

11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정규과정, 총 ☐☐ 년 ☐☐ 개월
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민자지원센터 등), ☐☐ 단계 수료
1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단계 수료
14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 단계 수료
15 그 외 사설학원 등, 총 ☐☐ 년 ☐☐ 개월

• **(문62) 본국에서의 학습 경험 응답, 수료하지 않았거나 단계 기억 못하는 경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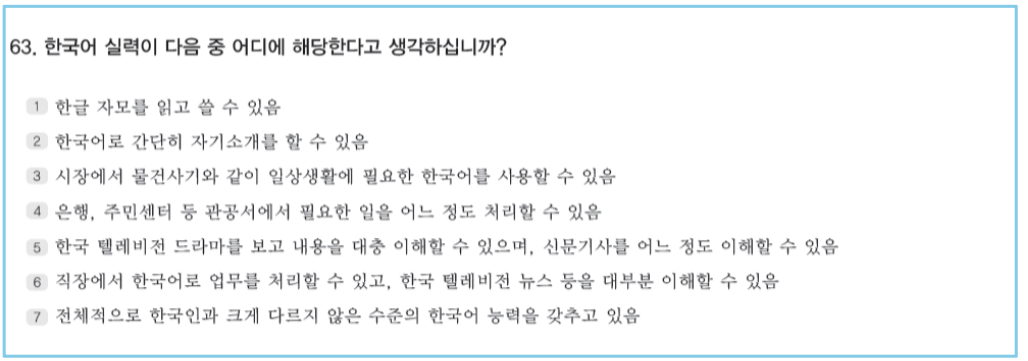
62번 문항에 '있음'을 선택했으나, 한국이 아닌 본국에서 학습한 경험을 응답했다는 참가자(bjo, lgj, cgh, lhy)가 있었고, 어떤 나라에서 학습한 경험을 응답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hsw, yla)도 있었다. 또한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참가자(cgh), 한국어 교육을 받았으나 수료하지는 않았거나(pjy), 수료단계가 기억나지 않는다(ssn)고 응답한 참가자도 있었다.

학습한 국가 명시, 교육기관에서 수강, 학습기간 명시 등 응답기준을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62-1번 항목의 '국내' 용어가 '본국'으로 이해되는 경우(hsw)가 있어 용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항목추가)**
- 본국의 한국어 교육 정규과정(총 *년 **개월)
- 혼자서 학습하거나, 가족이나 동료로부터 배움

☞ **(용어검토)** 국내 대학 → 한국 대학

☞ **(응답방식)**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담당해 온 한 전문가는 현재 학습 기간과 학습 단계가 혼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학습 단계가 모두 달라 각 기관의 단계를 적는 것보다 한국어 학습 기간을 응답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63. 한국어 실력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한글 자모를 읽고 쓸 수 있음
2 한국어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음
3 시장에서 물건사기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
4 은행,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필요한 일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음
5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내용을 대충 이해할 수 있으며, 신문기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음
6 직장에서 한국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한국 텔레비전 뉴스 등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음
7 전체적으로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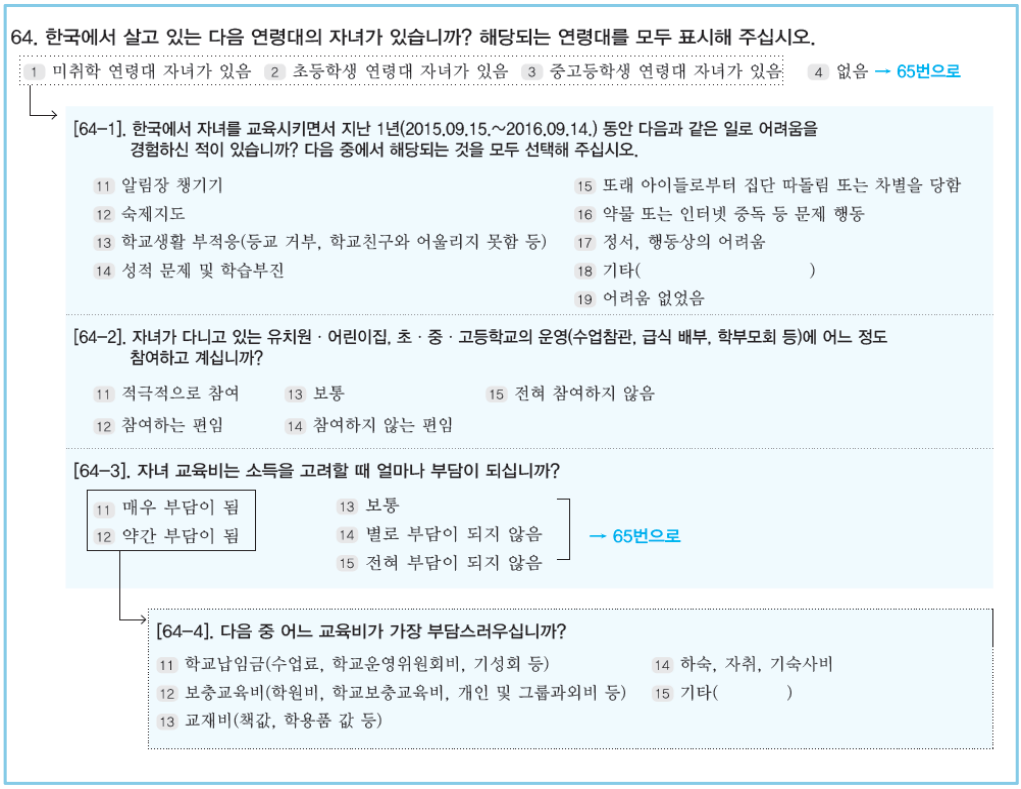
- **(문63) 단순한 문장으로 수정 필요**

63번 질문의 경우, 이중평가 항목 등에서 정확한 응답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한글을 잘 말할 수 있지만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참가자(ysh), 뉴스는 대부분 이해하지만 직장에서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lyc) 등이 있었다. 또한 뉴스를 이해하지만 “대부분 이해하는 건 아닌데요?”라고 하면서 항목 선택을 어려워한 참가자도 있었다(pjy). 이는 한 항목에 다양한 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참가자는 본인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개의 응답 항목을 모두 선택하였다(gyh, hss, njr, yla).

☞ **(응답항목)**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한국어로 말하기, 한국어 듣고 이해하기 등에 대해 단계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한국어 실력을 상/중/하 등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 **(항목추가)** 한글을 말할 수는 있으나 쓸 줄은 모름

9) 자녀교육


64.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음 연령대의 자녀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연령대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미취학 연령대 자녀가 있음 2 초등학생 연령대 자녀가 있음 3 중고등학생 연령대 자녀가 있음 4 없음 → 65번으로

[64-1].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지난 1년(2015.09.15.~2016.09.14.) 동안 다음과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1 알림장 챙기기
12 숙제지도
13 학교생활 부적응(등교 거부, 학교친구와 어울리지 못함 등)
14 성적 문제 및 학습부진
15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또는 차별을 당함
16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등 문제 행동
17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
18 기타( )
19 어려움 없었음

[64-2].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 · 어린이집, 초 · 중 · 고등학교의 운영(수업참관, 급식 배부, 학부모회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11 적극적으로 참여
12 참여하는 편임
13 보통
14 참여하지 않는 편임
15 전혀 참여하지 않음

[64-3]. 자녀 교육비는 소득을 고려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11 매우 부담이 됨
12 약간 부담이 됨
13 보통
14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음
15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
→ 65번으로

[64-4]. 다음 중 어느 교육비가 가장 부담스러우십니까?

11 학교납임금(수업료, 학교운영위원회비, 기성회 등)
12 보충교육비(학원비, 학교보충교육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등)
13 교재비(책값, 학용품 값 등)
14 하숙, 자취, 기숙사비
15 기타( )

- **(문64~문66) 자녀가 없는 경우 바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 지시**

64번부터 66번까지 질문은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64번 이전에 이동 지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66번까지 연속해서 질문을 읽고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고 바로 66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동지시가 필요하다.

☞ **(항목이동)** 자녀 없는 사람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동지시 추가
☞ **(기준기간)** 64번에서 해당 연령의 출생년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 응답자 편의 제고
→ 예: 미취학 연령대(2010년 이후 출생)

- **(문64-1, 문64-2)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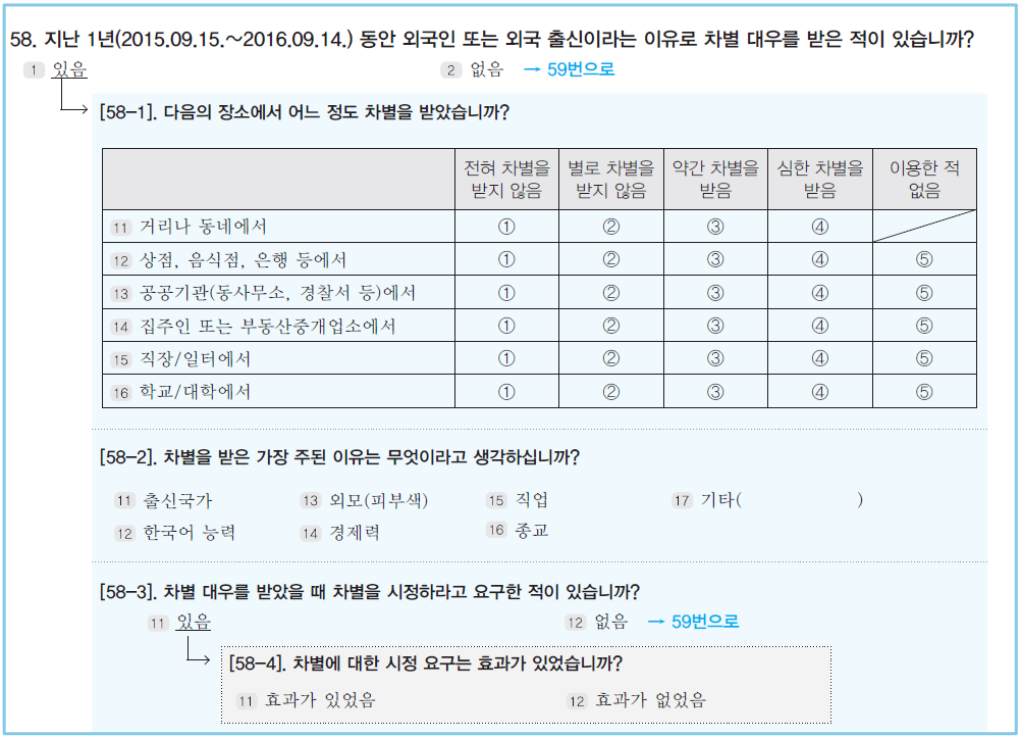
미취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않는다면 64-1번은 응답하기 어렵고 특히 64-2번은 응답이 불가능하다.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응답

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크다고 설명하면서 교육비 부담에 대학생 자녀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참가자도 있었다(kol).

- **(문64~문64-4) '미취학', '정서', '배부', '보충교육', '연령대' 용어 이해 어려워 함**

'미취학'(pjy), '정서'(pjy, lhy), '배부'(pjy), '보충교육'(pjy), '연령대'(lhy) 등의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이 있었다.

10) 기타



58. 지난 1년(2015.09.15.~2016.09.14.) 동안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 59번으로

[58-1]. 다음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습니까?

	전혀 차별을 받지 않음	별로 차별을 받지 않음	약간 차별을 받음	심한 차별을 받음	이용한 적 없음
11 거리나 동네에서	①	②	③	④	
12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①	②	③	④	⑤
13 공공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등)에서	①	②	③	④	⑤
14 집주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①	②	③	④	⑤
15 직장/일터에서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대학에서	①	②	③	④	⑤

[58-2]. 차별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출신국가 13 외모(피부색) 15 직업 17 기타( )
12 한국어 능력 14 경제력 16 종교

[58-3].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11 있음 12 없음 → 59번으로

[58-4].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11 효과가 있었음 12 효과가 없었음

- **분기 항목 디자인 수정**

현재 본 조사표에는 선행 항목 응답에 따라 후속 항목의 응답 여부가 결정되는 분기 항목이 많은데, 후속 항목이 두 개 이상이거나 다음 섹션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항목의 이동 지시를 잘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했을 때 항목 분기를 어려워하고 응답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응답해 시간을

소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58번을 응답하지 않고 바로 58-1번부터 응답을 시작하여 모두 '전혀 차별을 받지 않음'을 선택하였는데, 이 후 면접에서 차별경험을 다시 질문하자 없다고 수정하였다(pyh). 다시 말해 58-1번부터 58-3번까지 응답할 필요가 없으나 응답한 것이다. 한편 일부 참가자는 후속 항목에만 응답하고 해당 후속 항목으로 이동하기 위해 선행 항목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응답항목(예: 있음, 송금함 등)에는 기입하지 않기도 하였다(asg, ssn).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조사원 면접방식이 원칙이므로 사전 교육받은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게 되어 실제로 이러한 사항들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발생가능한 자기기입식 조사에 대비하고 보다 명확한 조사표 디자인을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지시사항 강조 표시**

이 밖에도 모두 선택하라는 항목에서 하나만 응답하거나 두 개만 선택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을 응답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각 질문 문장에서 '모두', '주된' 등의 지시사항 부분을 진하게 하거나 밑줄을 그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

-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경**

일부 항목(근로조건 비교 등)을 제외하고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는 경우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 응답자들은 '보통' 응답 경향이 높으며, 이 경향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결과 활용면에서도 유용하지 않다.

- **매트릭스 형태, 개방형 항목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응답자들은 매트릭스 형태나 개방형 항목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트릭스 형태는 나열식으로 수정하거나, 응답항목의 범주를 단순하게 통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또한 개방형 항목, 특히 이중 계산이 필요하거나 금액과 관련한 부분은 응답과정이 어렵고, 정확한 응답을 얻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범주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중국어 조사표의 표기방법 검토**

본 조사표는 한국어와 외국어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본국어를 참고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 있는 한국어 조사표 외에 향후 외국어 조사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중국어 조사표의 표기 방식 검토는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보인다. 중국어는 번체자와 간체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번체자는 한국, 대만, 홍콩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간체자는 중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주로 사용된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또는 대만인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번체자와 간체자의 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풀이

1)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본 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보고된 경우가 많았다. 조사원이 응답자가 이해를 못하거나 다르게 이해한다고 보고한 용어 중 상위 30개가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소속감', '낙심/낙담', '정당', '여가', '고충처리', '직무능력', '사적이전' 등은 50회 이상 보고된 것으로 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 이해를 못하거나 다르게 이해한 용어

순위	용어	질문번호	응답 빈도
1	소속감	56번	276
2	낙심	59번	101
3	정당	57번	94
4	여가(생활, 활동)	55, 57번	83
5	고충처리	29번	82
6	직무능력(개발)	38번	63
7	사적이전	48번	55
8	사회보험	45, 46번	43
9	조사대상주간	11~24, 31, 35, 36번	32
10	체류	9, 38, 39, 67~72번	31
11	접근용이성	44번	31
12	월평균(총소득/임금)	25, 26, 45, 48번	31
13	사회단체	45, 48, 57번	31

순위	용어	질문번호	응답 빈도
14	노동(조합단체/강도)	28, 57번	31
15	차별	33, 54, 58번	27
16	상용근로자	23번	22
17	주거환경	43, 44번	21
18	임금(근로자)	21, 25~29, 45번	21
19	치안	44번	19
20	송금	47, 48번	19
21	고용보험	46, 48번	19
22	동호회	52, 57번	17
23	산재보험	46, 48번	16
24	본국	26, 33, 56, 57, 59, 60번	16
25	대기오염	44번	15
26	승진기회	29번	13
27	근로(기간/조건)	21, 24, 28, 29번	13
28	전반적인	44, 50, 53번	12
29	시민운동단체	57번	12
30	한국어능력시험	61번	11

2)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풀이

조사과정에서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조사원의 추가 설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하기 쉽도록 조사표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표에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사원의 개인적 역량에 맡겨두는 것은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공통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1-9>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기초사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적 풀이와 쉬운 풀이를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을 토대로 조사표의 질문 및 추가설명에 반영하거나, 지침서에 첨부할 것을 제안한다.

〈표 1-9〉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풀이

순위	단어	쉬운풀이	사전풀이
1	소속감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느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
2	낙심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됨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함
3	정당	정치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집단	정치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
4	여가 (생활, 활동)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때(하는 활동)	일을 하지 않는 시간, 또는 일을 하는 중간에 생기는 여유로운 시간
5	고충처리	어려운 일을 해결함	고충: 괴로운 마음이나 어려운 사정 처리: 일이나 사무, 사건을 절차에 따라 정리해 마무리함
6	직무능력 (개발)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힘 (을 키우는 일)	직무: 직업상 맡은 일, 능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
7	사적이전	개인 간에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이전: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받음
8	사회보험	나이가 많아지거나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장치나 제도	질병이나 노령, 근로 능력의 상실 따위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인 보험.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네 종류가 있으며 보험료는 정부, 사업주, 피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9	조사대상 주간	어떤 일을 알아보기 위한 기간	조사: 어떤 일이나 사물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10	체류	정해진 시간동안 어느 곳에 머무름	집을 떠나 어떤 곳에 가서 머물러 있음
11	접근용이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운	접근: 가까이 다가감 용이하다: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
12	월평균 (총소득 /임금)	보통 한 달 동안 받는 (월급)	한 달 동안의 평균 (평균: 수나 양, 정도의 중간 값을 갖는 수)

순위	단어	쉬운풀이	사전풀이
13	사회단체	사회나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곳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단체
14	노동 (조합단체/ 강도)	직업, 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세기)	사람이 필요한 음식이나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는 일 (조합: 여럿이 한데 모아 덩어리로 짬 강도: 쇠붙이 등의 단단하고 센 정도)
15	차별	대상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함	둘 이상을 차등을 두어 구별함
16	상용근로자	항상, 늘 일하는 사람	상용: 일상적으로 씀 근로자: 정해진 시간에 육체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
17	주거환경	집의 상태나 상황	주거: 일정한 곳에 자리 잡고 삶 또는 그런 집 환경: 1. 생물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 자연상태나 조건, 2.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주위의 조건이나 상황
18	임금 (근로자)	일하고 받은 돈(일하는 사람)	일한 대가로 받은 돈 (근로자: 정해진 시간에 육체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 체불: 마땅히 내주어야 할 것을 내주지 못하고 미룸 차이: 서로 같지 않고 다름, 또는 서로 다른 정도)
19	치안	사회의 안전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함
20	송금	돈을 보냄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을 통하여 돈을 보냄 또는 그 돈
21	고용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고용: 돈을 주고 사람에게 일을 시킴 보험: 미래의 재해나 질병 등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돈을 납부해 적립해 두는 제도
22	동호회	같은 취미나 활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순위	단어	쉬운풀이	사전풀이
23	산재보험	일하는 곳에서 생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산재(산업재해): 작업 환경이나 작업 중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뜻밖의 사고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험: 미래의 재해나 질병 등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돈을 납부해 적립해 두는 제도
24	본국	자기 나라	자기의 국적이 있는 나라
25	대기오염	하늘의 공기가 더러움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가스 등에 의해서 지구를 둘러싼 공기가 더러워지는 현상
26	승진기회	회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때	승진: 직장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름 (기회: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나 경우)
27	근로 (기간/조건)	회사나 단체에서의 일(기간/일하는데 필요한 자격이나 요소)	근로: 부지런히 일함 (기간: 어느 일정한 때부터 다른 일정한 때까지의 동안 조건: 1. 어떤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 2.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내놓는 요구나 견해)
28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어떤 일이나 분야 전체에 걸쳐서
29	시민운동 단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 사람들의 모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
30	한국어능력 시험	한국어로 말하는 실력(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	사전에 없음

제4절 결론

본 연구는『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조사표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지면접, 조사원 보고, 전문가 검토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특히『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응답자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조사내용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정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조사표 응답시간 고려하여 조사항목 축소 및 분리 필요**

조사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53.9분이었다. 조사원의 설명에 따르면,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응답자의 직장을 방문하여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조사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조사표 작성시간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중하여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조사표가 길면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저하되고 반응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김권현 등, 2015; 김청택, 2016), 본 조사의 응답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표를 구성하여 항목을 축소하거나, 조사부문을 분할하여 2년 주기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홀수년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을 조사하고, 짝수년에는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부문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을 축소하거나 분리하여 조사표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면, 조사표의 형식을 변경하거나(예: 매트릭스 형태에서 나열식으로), 가독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조사원 보고 결과, 조사표에 대한 질문 및 응답 어려움**

조사원 보고 결과에 따르면, 시험조사 사례 2,240건 중 질문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570건(25%), 응답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696건(31%)에 달했다. 특히 질문이나 응답이 어렵다고 보고된 상위 항목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주로 매트릭스 형식이거나 수치를 직접 입력하고 계산이 필요한 항목들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용어나 개념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가 794건(35%)이었다.

- **인지면접 결과 및 개별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인지면접에서는 조사원 보고 결과에서 드러난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응답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응답오류나 오류 유발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면접 과정에서 확인된 응답 어려움이나 응답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별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에는 질문과 응답항목의 표현 및 용어 수정, 질문순서 검토, 하위항목 구분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응답대상이나 응답기준 검토, 응답항목의 단위 수정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사항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특별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해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매트릭스 형태, 개방형 항목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조사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할 때, 매트릭스 형태나 개방형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트릭스 형태는 제시방식의 특성상 응답항목이 모두 각각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여 기술하지 않고 용어나 문장을 축약하여 기술하는 경향이 높다(예: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이는 응답자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접근용이성'을 매트릭스 형태에서 나열식 질문으로 수정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방형 항목의 경우에는 비율, 소득, 임금, 송금액 등 수치를 직접 입력해야 하거나 계산이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출금액을 비율로 응답해야 하는 항목은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한 항목으로, 응답과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응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인지면접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대부분 먼저 금액을 생각한 후 다시 비율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일부 참가자는 계산기를 사용하여 총액을 비율로 계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응답자의 경우에는 비율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응답하기도 하였고, 실제 면접 상황에서는 정확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응답자들 중 전체 합이 100%가 되지 않은 오류를 보이는 경우나,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민감한 항목에 대한 검토 필요**

소득 등 금액과 관련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응답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방형으로 소득을 질문하는 경우에 더욱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임금 등의 항목은 범주형으로 변경하여 응답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한 응답과정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49번 문항의 경우, 응답항목이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예: 식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끼니를 거른 적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질문 내용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거나 해당 사례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 **분기 항목, 주요 지시사항 강조, 리커트 척도의 수준 등 검토**

본 조사표에는 선행 항목 응답에 따라 후속 항목의 응답 여부가 결정되는 분기 항목이 많은데, 항목 분기를 어려워하고 응답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응답해 시간을 소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명확한 조사표 디자인을 위해 분기 항목에 대한 지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두 선택하라는 항목에서 하나만 응답하거나, 두 개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을 응답하는 참가자도 있었는데, 각 질문 문장에서 '모두', '주된' 등의 지시사항 부분을 진하게 하거나 밑줄을 그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

리커트 척도를 제시하는 경우, 일부 항목(근로조건 비교 등)을 제외하고는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경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5점 척도를 적용할 경우, 응답자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결과 활용 측면에서도 유용하지 않다.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풀이 제시**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면서, 조사원 보고 결과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된 용어 중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용어에 대한 풀이를 별도로 제시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조사원의 추가 설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해하기 쉬운 조사표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조사표에 모든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고 조사표가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원이 용어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원 간 일관된 설명을 유도하기 위해 용어 설명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중국어 조사표의 표기방법(간체자, 번체자) 검토**

향후에는 한국어 조사표 외에 외국어 조사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중국어 조사표의 표기방식 검토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중국어는 번체자와 간체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한 종류의 조사표만 제공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또는 대만인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번체자와 간체자의 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2014),『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김권현, 유동주, 김형준, 김청택 (2015),『설문지의 길이가 응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6, 1-48
김청택 (2016),『조사연구에서의 비표집오차』, 통계개발원 전문가세미나 발표자료
법무부·통계청 (2016).『2016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시험조사 지침서』, 통계청 내부자료
통계청 (2015).『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통계청
통계청 (2015).『2015년 사회조사표. 통계청』
통계청 (2016).『2016년 사회조사표. 통계청』
통계청 (2016).『경제활동인구조사표. 통계청』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Campanelli, P. C., Martin, E, A., and Rothgeb, J. M. (1991), “The use of respondent and interviewer debriefing studies as a way to study response error in survey data”, The Statistician 40, 253-264.
Hughes, K. A.(2004), “Comparing pretesting methods: Cognitive interviews, respondent debriefing, and behavior coding”, Census Bureau.
Tourangeau, R., L. J. Rips., and K. Rasinski(2000), “The psychology of survey response”, Cambridge.